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14호 2026년 04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다 '속마음 토크'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8일 시청 별관 여성가족국장 집무실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한국 생활의 고충을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다문화가족 속마음 토크'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2월 25일 실시된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의 후속 조치로, 이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사 3면〉 이지은 기자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 안내

경기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

경기도가 오는 4월 9일까지 '2026년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가자 105명을 모집해요.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숙식비, 교육비와 사전·사후 교육 등 전 일정에 필요한 비용 전액(여권 및 비자발급비용 제외)이 지원돼요. 사전 교육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며, 현지 적응 훈련과 자기 계발 계획 및 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이 진행돼요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청소년이에요. 올해는 2009~2011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요.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4월 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신청하면 돼요. 경기도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1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영유아 교재 배달 서비스

경기도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지원 사업 상반기 접수를 시작해요.

선정된 가정에는 가구당 3만4천 원 상당의 교재·교구를 택배로 제공하며, 비대면 놀이교육 콘텐츠를 함께 지원해요. 희망 가정은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놀잇감과 심화놀이 코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놀이코칭과 연계해 가정 놀이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차 신청은 취약계층 및 우선 지원 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해요.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출생아 가정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 가정 등이에요. 이후 일반 가정을 포함한 추가 신청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에요.

취약계층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정보육 가정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

경기도가 3월 28일부터 평택과 연천에 위치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도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야생동물의 생태와 구조, 치료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제 구조된 야생동물 사례를 중심으로 연령대에 맞춘 내용으로 진행돼요.

교육 참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급단위 또는 가족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당 20명 내외로 진행돼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예약 신청하면 돼요.

〈중국어 6면, 베트남어 25면, 러시아어 15면, 태국어 33면, 영어 28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과천 11 구리 12~13 평택 14~18 광주 19~21 이천 22~23 광명 24~27 성남 28~30 양평 31 김포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 中文 6, 1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23, 25 러시아어 Русский 15, 2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33 영어(English) 13, 28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9, 11, 12, 19, 21, 31 나의 학습 My Study 8, 15, 17, 20, 26, 29, 34 보건 Health 22 이주배경청소년 10, 36 외국인근로자 2 도서관 Library 4, 24, 27 여가 Leisure 5, 22 교육 Education 1, 6, 15, 25, 28, 33 인권 Human Rights 28 국제교류 3 마약예방 6, 13, 19, 21, 23, 33 복지 Welfare 7 주거 Residence 10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지속가능성 좌우

경기연구원, 공공기숙사 확대·빈집 활용 등 경기도형 주거지원 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약 204만 명이며 이 가운데 68만 명(33.3%)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만 6천 명 수준이었던 경기도 외국인 인구가 약 14.7배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증가와 함께 농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가구 가운데 13.3%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구의 같은 비율인 2.2%보다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외국인 가구의 42.7%가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포천·파주 등 농촌 지역을 직접 조사한 결과 비닐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나 패널 건물을 설치해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거처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 있어 장기간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농업과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정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비전문취업(E-9) 등 다양한 체류자격 노동자까지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빈집이나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면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하성 기자

신미숙 의원, 이주민 교통불편 해소 시급...통합적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3월 2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다문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비롯해 남영선 팀장과 신미숙 도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퇴근 시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긴 배차 간격, 늦은 시간 이동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교통 문제를 호소했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근로와 일상생활 모두에서 불편이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스리랑카에서 온 차미크르씨는 "향남, 안산시, 평택시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려면 직통 노선이 부족해 대부분 수원시를 경유해야 한다"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인데, 주말에는 대중교통 운행도 더욱 제한돼 이동이 훨씬 어렵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일상적인 교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영선 팀장은 "교통 이용이 불편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장 노선 안내창에서 다국어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교통을 이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신미숙 도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교통 불편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생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통 개선과 정책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AI시대 독서교육' 전자영 의원, 좌장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지난 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을)이 참석해 격려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는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법제도·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이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다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속마음 토크' 차담회 개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8일 시청 별관 여성가족국장 집무실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한국 생활의 고충을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다문화가족 속마음 토크'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2월 25일 실시된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의 후속 조치로, 이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중국, 베트남, 일본,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자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들 중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과 결혼이민자 멘토, 다누리꾼(시정홍보 활동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 등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이해인 씨는 "자기 분야에 모두 베테랑인 참가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수원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게 돼서 기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 유춘희 씨도 "관광통역사로 오래동안 일했는데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알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차담회 이후 참가자들은 수원시청 본관으로 이동해 '새빛민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청 라운딩을 진행했다. 특히 민원실에서 외국인 거소증명서 등 민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현재 수원시는 이주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이주민정책과 내 임기제 공무원 채용(2명) ▲신규 결혼이민자 적응을 돕는 '멘토링 사업'(15명) ▲외국인 시정홍보단 '다누리꾼'(64명)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수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2026 만석거 새빛축제, 4월 3일 시작...10일간

2026 만석거 새빛축제가 4월 3일 시작된다. 축제는 12일까지 10일간 장안구 만석거(만석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만석거 새빛축제는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인 만석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수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봄밤 축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행사는 4일 열린다. 오후 6시 '새빛콘서트'(야외음악당)를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에는 드론쇼와 불꽃놀이,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드론 500대를 활용한 야간 연출로 만석거 위에 화려한 장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불꽃놀이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하고, 음악분수는 축제 기간 매일 오후 7시·8시·9시 하루 세 차례 운영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호수산책로 일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열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석공원 벚꽃길을 따라 조성한 '새빛산책길'도 축제 기간 내내 운영한다. 레이저와 특수 조명을 활용한 벚꽃 연출, 다양한 라이팅과 포토존을 설치해 야간에도 감성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안구가 주관하는 '새빛콘서트'에는 가수 인순이와 수원시립합창단, 재즈밴드 등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과 체험,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민다. 수원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 6개소, 총 222면을 확보했다. 송정초·송원중·송죽초·정자초·장안고·수일여중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며, 만석공영주차장과 장안구청 부설주차장, 케이티위즈파크 주차장 등 인근 주차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 자원봉사자 등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교통 정리와 관람객 질서 유지에 나선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수원여행 미리보기' 콘텐츠 제작...'수원 방문의 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수원 화성행궁과 수원시 일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제 커플·부부와 워킹홀리데이 인플루언서 8명이 참여해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수원의 관광 매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여행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인플루언서들은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수원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며 콘텐츠를 제작한다. ▲화성행궁 단체 방문 및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 ▲수원화성과 행궁동 카페거리 ▲치킨·맛집·노포 등 미식 체험 ▲광교 등 로컬 데이트 명소 방문 ▲드라마 촬영지와 벚꽃 명소 탐방 ▲남수동 한옥호텔 '남수헌'과 수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공간을 촬영한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사절단' 콘셉트의 오프닝 촬영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별 개별 일정으로 역사·미식·로컬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한다. 공동과 개별 촬영을 병행해 개별 여행객 중심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콘텐츠를 활용해 '수원 방문의 해'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수원시 공식 매체와 연계한 2차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관광은 따뜻한 환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시선으로 수원만의 로컬 여행 경험을 확산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점점 커지는 이중언어 실력과 꿈!

수원다가, 2026년 이중언어학습지원 프로그램 개강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센터에서 2026년 이중언어교육지원 사업 '이중언어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어 3개 반, 베트남어 2개 반 등 총 5개 반으로 운영되며, 총 77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개강 당일, 수업에 앞서 57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수업 신청 절차, 수업 진행 방식, 학생 매뉴얼 등을 안내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 수업 후 과제 수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첫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소개, 수업 규칙 안내, 수업 진행 방식 등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어, 베트남어반은 발음 및 단어 등을 위주로 진행하고, 중급반은 문장 쓰기, 말하기 등을 진행한다. 중국어 HSK반은 언어 등급 평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부터 지침 변경에 따라 상반기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1교시,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교시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1교시가 추가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031-257-8530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2026년 과수공원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2026년 수원시 과수공원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과수공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 도심형 과수공원(호매실동 1382 일원)에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오감자극 체험을 하며 과수의 생육 과정을 배우고 수확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교육·힐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4~7월에는 과수 꽃과 가지를 관찰하는 생육 과정 체험이 진행되고, 6~10월에는 체리·매실·자두·포도·배·사과 등을 수확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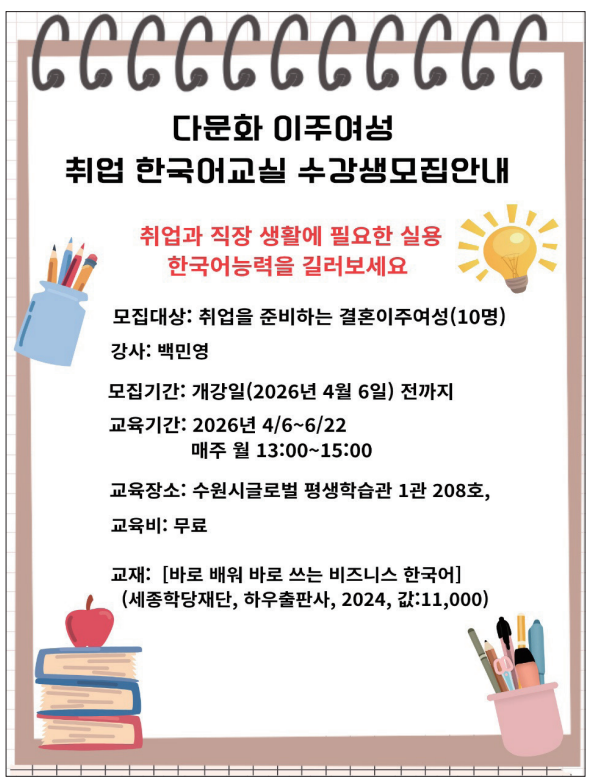
수원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수확 체험료는 1인당 5000원이고, 생육 과정 체험은 무료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수 생육 과정부터 수확까지 체험하며 자연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수원새빛북런'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확산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수원새빛북런'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와 ㈜아이스크림에듀, (사)씨드(Seed)숲, 수원시서점협동조합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새빛북런(Book Learn)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새빛북런은 민간의 우수한 독서 교육 콘텐츠로 미래를 이끌어 갈 독서 인재를 키우는 사회공헌사업이다. 4~8월에 독서챌린지 앱·홈페이지에서 독서를 인증하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수원새빛북런 챌린지'를 진행한다. 9~10월에는 코스튬 퍼레이드, 성곽 걷기, 체험존 운영 등으로 진행되는 '수원새빛북런 데이'를 연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고, (사)씨드숲은 수원새빛북런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아이스크림에듀는 독서 인증 챌린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원시서점협동조합은 지역 서점을 기반으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캠페인 등 독서 행사 개최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아이스크림에듀 대표, (사)씨드숲 사무총장, 수원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새봄을 즐길 가장 특별한 방법? 봉화 청량산 수원캠핑장!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으로 만든 힐링 쉼터…4월 본격 운영, 다문화가족도 즐겨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을 즐기는 것을 '유산(遊山)'이라고 했다. 명산을 찾아 유람하며 선망하는 학자들의 자취를 짚고 이를 기록해 '유산기(遊山記)'를 남기는 풍습이 있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퇴계 이황은 유년시절 수학했던 청량산을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청량산인'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황을 흠모한 선비들이 청량산을 여행하고 남긴 유산기가 100편 이상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산이 봉화에 있는 '청량산'이다. 새봄을 맞아 옛 선비처럼 산을 즐기며 자연 그대로를 노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청량산 수원캠핑장이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맛보기'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은 수원에서 220여㎞가량 떨어져 있다. 꽤 먼 거리지만 막상 떠나보면 여정이 지루하지만은 않다. 두 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국도로 빠지면 한 시간쯤 주변의 자연을 감상하며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낙동강 줄기를 만나기 시작하면 산과 어우러진 물길이 여행의 설렘을 자극하는 풍광이 펼쳐진다.

청량산은 '남한의 소금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수려한 산세와 특별한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연출해 눈을 뗄 곳이 없다. 파란 하늘 아래 수묵화 병풍처럼 산이 둘러져 있고 산자락을 감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산과 강이 감아쥔 아담한 마을들을 지나 청량산도립공원 입구 근처에 도착하면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림 같은 풍경의 한쪽에 자리 잡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상생을 위해 협력한 결과물이다. 수원시와 봉화군은 지난 2015년부터 수원화성문화제와 봉화송이축제 등 두 도시의 대표 축제를 상호 방문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이후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과 시민에게 활력을 줄 캠핑장이 필요하던 수원시가 협약을 맺고 기존 캠핑장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가을부터 수원캠핑장 운영을 시작했다. 캠핑장 입구에서 사이좋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수원의 꽃 진달래와 봉화의 꽃 산목련이 두 도시의 우정을 상징한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고요하게 사색하고 조용하게 힐링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달리는 차량 소음 대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면 도시의 냄새가 아닌 나무와 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머무르는 것만으로 맑아질 수 있는 수원시민과 봉화군민의 특별한 쉼터다.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캠핑장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에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자신만의 장비를 갖춘 프로 캠핑러부터 캠핑을 경험해 보고 싶은 초보자까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6인까지 친구와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힐링도 가능하다.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캠핑장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카라반이다. 수원화성의 명소를 따라 장안마루, 화서마루, 팔달마루, 창룡마루, 화홍마루, 행궁마루 등으로 각각 이름이 지어졌다. 낙동강변에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어 눈을 두는 곳마다 비경이 펼쳐지고, 공간도 넓어서 최대 6인이 머물 수 있다. 한층 위쪽에는 글램핑 시설이 있다. 2~3인이 여유롭게 머물기 좋은 5개 동(장안뜰, 화서뜰, 팔달뜰, 창룡뜰, 화홍뜰)과 4인용 2개 동(연무뜰, 행궁뜰)이 준비됐다. 사방으로 탁 트인 느낌의 공간감이 으뜸이다. 가장 위쪽은 숲으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의 이지야영장이다. 소박한 규모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있는 미니카라반 5개 동이 봉화와 수원의 명물을 따라 두견채, 송이채, 함박채, 춘양채, 솔채 등으로 명명됐다. 개인 장비를 활용해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12개 면이 있다. 입구에서 가까운 윗마당 9곳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나무데크가 설치됐고,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아랫마당 3곳에는 쇄석이 깔려 있어 개인 캠핑카나 카라반을 둘 수 있다.

◇자연에서 누리는 특별한 경험

청량산 속 자연 만으로도 캠핑의 묘미는 충분하지만, 수원시는 멀리까지 찾아온 시민들을 위해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주말에 많은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으니 시간대를 맞춰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 야외 잔디마당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열린다. 야외에서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요가명상테라피를 체험하면서 내면 소통법을 배우고 힐링할 수 있다. 금·토요일 오전 9시30분에는 프로그램실에서 계절 특화 프로그램을 한다. 봄에는 테라리움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봉화의 특산품을 활용해 지역의 맛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 요리 프로그램은 매주 2회 운영 예정이다. 토요일 오전 10시와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수~토요일은 공예 프로그램이 있다. 오후 2시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후 3시30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마다 재료비를 포함한 운영 요금이 다르며 숙박객만 이용할 수 있다. 소소한 즐길거리도 있다. 통나무 등 자연물로 균형놀이대 등 놀이시설을 만들고 바닥은 모래로 채운 자연놀이터는 어린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바닥분수도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도 가능하다. 바닥분수와 놀이터 사이 공간은 협곡 사이를 걷는 듯한 트릭아트로 꾸며 재미를 더했다.

◇수원캠핑장 예약법과 이용 수칙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오는 4월1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11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입실 가능하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퇴실해야 한다.

예약은 캠핑톡이라는 앱을 이용한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분 예약이 열린다. 4월1일 오전 10시부터 5월 예약을 접수 받는다는 뜻이다. 15일 오전 10시까지 예약 접수를 받은 후 16일 오전 10시에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시설의 50%는 수원시민과 봉화군민을 우선 추첨하고, 나머지는 무작위 선정한다. 당첨되면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마무리해야 된다. 예약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사이트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는 정원에 따라 평일 5만~7만원, 주말은 7만~11만원이다. 성수기에는 9만~13만원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오토캠핑은 1개소당 2만원이고, 주말과 공휴일 전일, 성수기에는 3만원이다. 수원시민과 봉화군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아름다운 산속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나무나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행위나 화기 사용은 절대 금지된다. 준비된 화롯대와 숯을 사용해 고기를 굽는 것은 가능하다. 야영장 내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반려동물은 함께할 수 없으며, 밤 9시 이후는 조용하게 매너타임을 지켜야 한다. 야영객에게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빌려준다.

송하성 기자






京畿道多文化家庭子女也可以参加的教育研修项目

弱势群体青少年海外研修支援、婴幼儿教材配送服务、野生动物生态教育项目等

支援京畿青少年海外研修

京畿道将招募105名"2026年度京畿青少年阶梯"项目参加者，报名截止至4月9日。

"京畿青少年阶梯"项目是向经济条件困难的青少年提供海外研修和当地体验机会，帮助其进行职业探索与自我发展。

该项目向参加者提供机票、食宿费、教育费和事前、事后教育等全程所需费用(护照及签证发放费用除外)。事前教育将于6月4日至7日在京畿未来教育坡州校区进行，为期3天4夜，内容包括当地适应训练和自我发展计划制定及团队项目策划等。

申请资格：以公告日为基准，在京畿道进行居民登记的基础生活领取者、法定次上位阶层、法定单亲家庭支援对象青少年。出生年份为2009年至2011年可申请，无海外研修及签证办理受限事由。

有意向参加的青少年可在4月9日下午5点之前在京畿道终身教育振兴院官网(gill.or.kr)上申请。

京畿道将通过文件及面试审查，于5月15日公布选定结果。最终被选拔的青少年将提供约3周的加拿大海外研修、当地文化体验、职业探索等机会。

婴幼儿教材送货服务

京畿道为了扩大家庭内的娱乐文化和强化家庭养育支援，符合婴幼儿发展阶段的教材•教具支援项目上半期开始接受申请。

被选定的家庭每户提供价值约3.4万韩元的教材及教具(通过快递配送)，并附带线上游戏教育内容。有意向的家庭可以通过分配到市郡的游戏指导师申请玩具和深化游戏指导。重点不仅是物资支持，还包括家庭游戏环境的建设。

第一轮申请以弱势群体和优先支援对象家庭为中心，从3月30日到4月12日受理。支援对象为居住在道内的出生后0~35个月的婴幼儿家庭，包括▲基础生活领取者▲次上位阶层▲单亲家庭▲新生儿家庭▲家庭保育(未使用保育机构)家庭等。此后，包括普通家庭在内的追加申请将根据项目推进日程另行通知。

弱势群体可以通过居住地行政福利中心咨询，家庭保育家庭可以在京畿道北部育儿综合支援中心主页(url.kr/pxb28b) 公告事项中申请。

野生动物生态教育项目

京畿道将从3月28日开始在位于平泽和涟川的野生动物救助管理中心，以道内儿童和青少年为对象开展"野生动物生态教育项目"。

参加"野生动物生态教育项目"，可以亲身体验野生动物的生态、救助和治疗活动。课程基于真实救助案例，并根据不同年龄段设计内容，不仅是参观，更强调实践体验。

项目参与可以托儿所、幼儿园、小学•初中•高中班级单位或家庭单位申请，每次约20名左右。详细事项可以参考"京畿道动物保护福利平台(https://animal.go.kr)"的公告事项进行预约申请。

京畿道表示通过该项目教育，旨在帮助儿童和青少年体验自然与生命的价值，并成为实践环境保护的契机。〈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พิเศษร่วมกันระหว่างภาครัฐด้านยาเสพติดในช่วงครึ่งปีแรกจนถึงวันที่ 15 พฤษภาคม

รัฐบาล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ยาเสพติดร่วมกันทั่วทั้งภาครัฐ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 2 เดือน จนถึงวันที่ 15 พฤษภาคม ทั้งนี้ ในปีที่ผ่านมา รัฐบาล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พิเศษในลักษณะดังกล่าว โดยสามารถจับกุม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ยาเสพติดได้จำนวน 7,666 คน และยึดยาเสพติดได้รวม 2,703 กิโลกรัม

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พิเศษในช่วงครึ่งปีแรกครั้งนี้ จะก้าวข้ามจากการมุ่งเน้นเพียงการจับกุมตรวจพบ ไปสู่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แบบรอบด้านตาม

3 ประเด็นหลัก ได้แก่ ▲การสกัดกั้นการลักลอบนำเข้าตั้งแต่ขั้นตอนชายแดน ▲การขจัดช่องทางการจำหน่ายแบบไม่พบหน้ากัน ▲การกวาดล้างยาเสพติดที่ละเมิด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เรามา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ถึงความมุ่งมั่นของ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ใ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 ยาเสพติด ซึ่งเป็นสิ่งที่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ควรรับรู้กันด้วยเช่นกัน

การกวาดล้างยาเสพติดที่ละเมิด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รัฐบาลมีแผนที่จะกวาดล้างยาเสพติดที่ส่งผลกระทบโดยตรงต่อ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และเพื่อลดบรรยากาศการก่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 เกี่ยวกับยาเสพติด โดย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ร่วมแบบให้เห็นได้ชัดในพื้นที่เสี่ยง เช่น ย่านสถานบันเทิง, และพื้นที่ที่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าศัยอยู่หนาแน่น

ก่อนอื่น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จะผลักดั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บบเข้มข้น โดยสะท้อนแนวโน้ม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 เช่น ยาเสพติด ชนิดใหม่, พื้นที่สถานบันเทิง, และยาเสพติด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โดยเฉพาะในกรณียาเสพติดชนิดใหม่ จะมีการจัดตั้งและดำเนินการ "คณะทำงาน รับมือยาเสพติดชนิดใหม่" เพื่อแบ่งปันข้อมูล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รวมถึงตัดขาดห่วงโซ่อุปทานและเครือข่ายการจำหน่าย, และมีแผนขยาย 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ข้อมูลกับ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มเติม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แผนที่จะจัดตั้งชุดปฏิบัติ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ร่วมในแต่ละพื้นที่ ร่วมกับหน่วยงาน เช่น หน่วย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ดย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ช่วงเวลาที่จำนวนผู้ใช้บริการสถานบันเทิงเพิ่มขึ้น เช่น ช่วงเปิดภาคเรียนใหม่, และ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ภายใน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ผู้ใช้บริการหนาแน่น เช่น ช่วงกลางคืนของวันหยุดสุดสัปดาห์

นอกจาก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ะจัดตั้งระบบฮอตไลน์ถาวรระหว่างหน่วย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ทั่วประเทศ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 และเมื่อได้รับข้อมูลข่าวกรองหรือเบาะแสเกี่ยวกับ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คดียาเสพติดที่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ร่วมทันที ใ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ร่วมดังกล่าว จะมี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ตัวต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ช่น 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 และการพำนักโดย 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ป็นต้น), การควบคุมตัวผู้พำนัก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กรณีเร่งด่วน, และหลังจากคดีสิ้นสุด จะ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 เช่น การบังคับส่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การ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รัฐบาลมีแผน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อบโ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เกี่ยวกับยาเสพติดที่ก่อให้เกิดความวิตกกังวลแก่ประชาชน โดยปราศจากการประนีประนอม ใดๆ ทั้งสิ้น

การขจัดเครือข่ายการจำหน่ายแบบไม่พบหน้ากัน

รัฐบาลมีแผนที่จะขจัดช่องทางการจำหน่ายแบบไม่พบหน้ากัน เช่น Telegram และ Dark Web โดย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ดกั้นการขายและโพสต์ โฆษณาออนไล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พร้อมทั้งติดตามตรวจสอบเครือข่ายการจำหน่ายและแหล่งเงินทุนขอ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สำ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สูงสุดระบุว่าจะผลักดันการสืบสวนร่วม โดยมี "ศูนย์สืบสวนร่วมคดียาเสพติดของภาครัฐ" เป็นแกนกลาง รวบรวมข้อมูล อาชญากรรมและศักยภาพด้านการสืบสวนจาก 8 หน่วยงาน ได้แก่ อัยการ, ตำรวจ, 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ป็นต้น

นอกจากนี้ เพื่อสกัดกั้นการจำหน่ายผ่านช่องทางออนไลน์ จะมีแผน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ข้นต่อเครือข่ายการจำหน่ายที่ใช้ Dark Web และอินเทอร์เน็ต โดยผ่านทีมสืบสวนเฉพาะทาง พร้อมทั้ง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การตรวจจับของระบบติดตาม E-drug Monitoring System รวมถึง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 เช่น การขอให้ลบหรือปิดกั้นโพสต์โดยอ้างอิงจากข้อมูลที่รวบรวมได้ และการใช้วิธีการซื้อขายล่อ เพื่อตรวจจับ และ ปราบปราม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ในเครือข่ายการจำหน่ายยาเสพติด

นอกจากนี้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มีแผนที่จะตัดขาดเส้นทางการจำหน่ายยาเสพติดผ่านออนไลน์ที่ใช้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ตั้งแต่ต้นทาง โดยอาศัยระบบสืบสวนเฉพาะทางด้าน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แผนติดตามทรัพย์สินที่ได้มาจาก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 เพื่อดำเนินการอายัด, และยึดคืน ควบคู่กันไป...〈중략, 한글 기사 33면〉

수원특례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한다

보건의료·요양·생활·주거 통합 지원, 한 번 신청으로 맞춤형 돌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돌봄 등 68종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상태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통합지원 창구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 인력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하고, 전문기관 종합판정과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내용을 조정한다.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지원 과정은 '조사-판정-계획-연계-모니터링' 체계로 운영해 서비스 누락 없이 연속적인 돌봄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방문진료·방문간호·퇴원환자 연계 지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식사·가사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돌봄도 함께 제공한다. 또 단기 회복형 주거 지원 시설인 '새빛돌봄스테이션'과 방문의료 기반 '새빛마을주치의' 등 수원형 특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 일월수목원 꼭 가야할 수목원

일월수목원은 지난 2월 산림청이 기획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공모에 응모했다.

산림청은 서류·현장평가, 온라인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거쳐 일월수목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수목원을 '2026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으로 선정했다. 공립수목원이 5개소, 사립·학교수목원이 5개소다.

전국 공립수목원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프리(BF) 인증을 획득한 일월수목원은 2026년도 수목원 10선 선정 테마인 '가족과 함께 가봐야 할 수목원'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산정원·그라스원 등 10개의 생태정원과 장식정원·빗물정원 등 7개의 웰컴정원이 있는 일월수목원은 가족이 언제든 함께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6년 상반기 중국동포 시민아카데미

1. 교육기간 : 2026. 03. 15 ~ 05. 31 (10회 진행)
2. 교육장소 : 교동 어울림센터 재미샵 2층
3. 교육대상 : 중국동포 및 한족 (성인만 참여 가능)
4. 내　　용 : 문화소통교육, 역사문화탐방, 힐링테라피, 환경정화활동
5. 세부내용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차	일 자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	03/15(일)	10:30~12:30	오리엔테이션/문화소통교육	전춘화 교수
2	03/22(일)	10:30~12:30	문화소통교육	이원수 대장
3	03/29(일)	10:00~12:00	다문화이미지개선(환경정화활동)	
4	04/05(일)	10:30~12:30	문화소통교육	김용필 국장
5	04/12(일)	10:30~12:30	힐링프로그램	이끼테라리움 숲 만들기
6	04/19(일)	10:00~12:00	다문화이미지개선(환경정화활동)	
7	04/26(일)	10:30~12:30	문화소통교육	김의 변호사
8	05/03(일)	08:00~18:00	역사문화탐방	
9	05/10(일)	10:30~12:30	문화소통교육	박동찬 소장
10	05/31(일)	09:00~14:00	상반기 종강식(음식 나눔 축제)	

* 힐링체험 및 외부활동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수강생 우선 진행되며 개인부담금 발생

<참고자료>

문화소통교육	힐링테라피	문화,역사탐방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세계음식문화체험

베이커리로 보는 세계문화

참여자 모집

신청바로가기

교육 대상 및 인원
성인 50명, 회기별 10명
(이주민 7명, 선주민 3명)

교육 일정
2026년 4월 8일 (수)~ 5월 6일(수)
매주 수 10:00 ~ 13:00 (총 5회 진행)

교육 장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8층
직업능력개발실

진행 내용

신청 일정
2026년 3월 22일(일) 13시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교육신청

참가비
회기별: 10,000원
입금 계좌 개별 안내

문의전화
070-4632-7130(교육팀)

차시	일정	내용
1차	4월8일	영국: 크림치즈 스콘
2차	4월15일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3차	4월22일	영국: 블루베이치즈크럼블
4차	4월29일	이탈리아: 티라미수
5차	5월6일	스위스: 롤케이크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경기도외국인일자리지원센터
Gyeonggi-do Foreigner Job Support Center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지원 서비스

외국인 일자리

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경기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거주 외국인분들에게
맞춤형 채용공고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ooking for a job in Gyeonggi-do? We offer customized job postings and career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참여대상 Who can apply?

구직자 Job Seekers
경기도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도내 거주 외국인
Foreign residents living in Gyeonggi-do, including marriage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who wish to work at companies in Gyeonggi-do

구인기업 Recruiting Companies
우수 외국인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구인 기업
Employers located in Gyeonggi-do that are looking to hire qualified foreign talents

신청방법 How to apply

· 취업상담 서비스 : 유선 및 이메일 신청
Employment Consultation Services : Available via phone or email

· 구직신청 : 구직자 풀에 등록하면, 맞춤형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Job Seeker Registration : Once registered in the job seeker pool, you will receive personalized job matching services and information on our programs.

· 구인기업 : 구인기업 풀에 등록하면, 우수 외국인 인력 매칭
Employer Registration : Once registered in the employer pool, you will be matched with qualified foreign talents.

T 031-270-9934 E global@gjf.or.kr

지원 프로그램 Our program

외국인 일자리 상담 :
외국인 구인 기업 및 외국인 구직자 일자리 관련 상담
Job Consultation for Foreigners : Employment - related consultation for companies hiring foreign workers and foreign job seekers.

외국인 유학생 취업특강 :
국내 취업 준비 및 비자 제도 이해 등
Employment Seminar for International Students : Guidance on job preparation in Korea and understanding of visa regulations.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Marriage Migrant Women

거주 외국인 국가별 네트워킹 활동
Country-Specific Networking Activities for Foreign Residents

❋ 지원 프로그램 문의(Inquiry about our program)
☎ 031-270-6624 /6625 E-mail: global@gjf.or.kr

외국인 채용관 신청 바로가기
QR코드스캔

수원특례시, 다문화가족 등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범죄·폭력 예방부터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여성 안전·안심정책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수원시가 범죄·폭력 예방부터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여성 안전·안심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민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더 높이고, 무인안심 택배보관함은 전면 교체해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한다. 공공 공간 불법촬영 예방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했다. 또 ‘여성폭력방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수원시 여성 안전·안심 정책의 핵심은 예방부터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바탕으로 여성 일상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한 주거 환경, 여성안심패키지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범죄 피해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모자·부녀), 여성 가구 등에 스마트 도어벨·스마트 홈카메라·문 열림 감지센서·휴대용 비상벨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안심패키지 이용 여성과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선호도 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물품을 선정했다.

휴대용 비상벨은 비상 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 최대 5명의 연락처로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고, 동시에 112에 신고된다. 범죄 예방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장치다. 올해는 99가구에 지원한다.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새빛톡톡,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1인 가구 여부 무관),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모자·부녀), 여성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택배보관함, 시민소통플랫폼으로

노후화된 무인안심 택배보관함은 최신 기기로 전면 교체한다. 수원시는 택배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동행정복지센터 등 14개소에서 무인안심 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무인안심 택배보관함은 다가구 주택·원룸 밀집 지역 등 비대면 택배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4개소에 설치된 노후 택배보관함을 모두 최신 기기로 교체한다. 유동 인구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일부 택배보관함에는 홍보영상 송출 기능을 도입해 시정 소식,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예방 상시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불법촬영 예방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원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예방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주 3회, 하루 3시간씩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점검하며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유포 대응 등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여성 폭력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수원시는 여성 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 사업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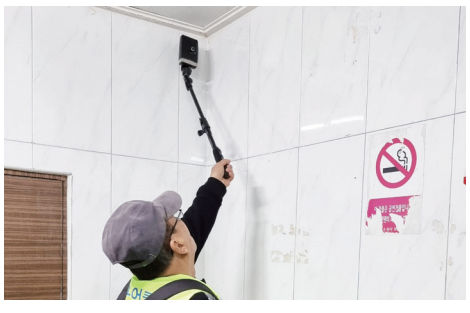
2026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대 전략목표와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상담소 공동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여성 안전·안심 정책의 출발점은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안전·안심 정책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평생학습관, 2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통합플랫폼 도입…172개 강좌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 2026년 2분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원시는 2분기부터 통합플랫폼 수강 신청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아닌 수원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swlearn.gseek.kr)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회원 정보는 연계되지 않아 통합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가입자는 별도 가입 없이 추가 동의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플랫폼 로그인 후 오프라인 학습 선택→프로그램 신청→수강료 납부→내 공간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2분기 프로그램은 ▲봄특강 ‘재밌나’ ▲인문·교양 ▲첨단미래기술 및 디지털 지식정보 ▲대상별 맞춤 ▲생활문화 및 거북이공방 ▲탄소중립 ▲학습모임 등으로 구성했다. 정규과정 134개와 학습모임 38개를 포함해 총 172개 강좌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금융, 콘텐츠 제작 등 실생활 중심 교육과 성균관대학교 지능로봇리빙랩 협업 과정을 운영한다. 글쓰기, 명화감상, 현대미술 등 교양 프로그램과 시니어·중장년·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좌도 함께 마련했다.

목공 체험 ‘거북이공방’,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학습모임 등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swlearn.gsee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합플랫폼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외복, 재수원교민회 1분기 교민회장 간담회 개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3월 14일, 센터 8층 강당에서 재수원교민회 1분기 교민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나라별 교민회장 및 임원, 수원시청 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석해 교민사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2027 수원방문의해를 맞아 추진되는 '새빛 글로벌 프렌즈'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주민이 글로벌 가이드, 글로벌 크리에이터, 관광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여 수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등 역사 관광자원 활용, 드라마 촬영지 안내,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교민회별 SNS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가별로 활용도가 높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교민회 소식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조정했다. 이어 2026년 교민회 연합행사(2분기 명랑운동회, 3분기 다문화한가족축제, 4분기 단합회)를 공유하고 교민회원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민회와 센터,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교민사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자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성인전환기 체류자격 설명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21일 이주배경 청소년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성인 전환기 체류 자격 설명회'를 열었다.

성인 전환기를 앞둔 중도입국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체류 자격 정보를 제공했다.

비자 제도 전반과 체류 자격 확보 로드맵을 소개하고, 대학교 진학과 취업 등 진로 선택에 따른 체류 방법을 비교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 참여자는 "자녀의 체류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준비 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계속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성인 전환기를 앞둔 중도입국청소년의 체류 자격은 진로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부모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신축 아파트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 '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조성한다.

수원시와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수원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거정책이다.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로,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111-3구역 전용 39㎡ 36호,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 등 총 63호를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111-3구역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 예비 역세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원화성,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를 갖춰 두 곳 모두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영통1구역 강태영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 주신 111-3구역·영통1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이 2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학생 승마 사업 참여자 모집

과천시, 전년보다 대상 인원 확대해 운영



과천시는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학생 승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16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강습비와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승마체험은 5주간 총 10회 강습으로 진행되며, '인덕원 승마스쿨'에서 기본자세와 안전 수칙, 말 끌기 등 기초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호스피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4월 21일 개별 통보된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강습비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회 공익 승마 사업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같은 기간 동안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승마체험을 통해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생 승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원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지은 기자

과천 학습공간 '율빛정원' 조성

과천시, 율목초·중학교 옥상에서 개원식

과천시는 지난 25일 율목초·중학교에서 옥상 휴게공간 '율빛정원' 개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선희 교육장, 학부모와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경과보고와 축사, 학생 및 학부모 소감 발표 등이 있었다.

'율빛정원'은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한 '율목초·중 옥상 휴게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번 사업에는 과천시 예산 1억 4천만 원과 교육청 예산 1억 4천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율빛정원'은 조경과 벽화 등을 활용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이동식 의자를 배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은 학습 공간이자 야외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놀이수업과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과천시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매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이중언어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구리시가족센터, 베트남어 및 문화 체험 행사 운영

구리시(시장 백경현)와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관내 8~13세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7일 개강해 매주 토요일 총 15회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아동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인 이중언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비다문화 아동들과 함께 학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감수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아동들이 언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베트남어 기초 회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이중언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아동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다문화 역량을 강화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구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추가로 이중언어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면 된다.

구리시가족센터는 매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가족센터(☎ 070-7776-29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구리시, '마더 케어 아카데미' 1기 운영

다문화가정 초보 엄마도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우리 아기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 '마더 케어 아카데미' 1기를 오는 3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더 케어 아카데미'는 첫아이를 출산한 초보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초보 엄마들이 전문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3년 신설된 '마더 케어 아카데미'는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기존 연 3기에서 4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 1기는 3월 27일부터 구리시보건소 웰빙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1회(3월 27일) '서로 알기와 엄마 되기' ▲2회(4월 3일) '베이비 마사지' ▲3회(4월 10일) '영유아 심폐소생술 및 안전 교육' ▲4회(4월 17일) '이유식 및 영양 교육' ▲5회(4월 24일) '발달과 놀이'로 구성된다. 이어 2기는 6월, 3기와 4기는 9월에 운영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보 엄마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031-550-8743~5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구리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신청해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학년도 초·중·고교 1학년 입학생 및 1학년 과정 전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10만 원이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정부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학생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입학준비금 지급 절차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116, 2866)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 취업 준비하는 청년 위한 '청년내일스쿨' 운영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22일까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에서 '청년내일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스쿨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준비 심화 과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채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인적성 검사에 대비한 실전형 특강으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며, ▲4월 8일 의사소통 능력 ▲4월 15일 수리 능력 ▲4월 22일 문제해결 능력을 주제로 이론 강의와 문제 풀이를 병행해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직업 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oint special government crackdown on narcotics to be conducted until May 15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conduct a joint, government-wide crackdown on narcotics for two months, running until May 15. Through a special government-wide crackdown last year, the government apprehended 7,666 drug offenders and seized 2,703 kg of narcotics.

Moving beyond simple detection, this special crackdown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plans to pursu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based on three themes: Blocking inflow at the border, Eradicating non-face-to-face distribution networks, and Combating narcotics that infringe on people's livelihoods. Let's take a look at the Korean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eradicate narcotics, a commitment that foreign residents should also be aware of.

Eradicating narcotics that infringe on people's livelihoods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visible joint crackdowns targeting vulnerable areas, such as entertainment districts and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foreigners, to eradicate drug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livelihoods and eliminate the atmosphere of drug-related crime.

Firs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pursue intensive crackdowns that reflect changing crime trends, including new types of drugs, entertainment districts, and medical narcotics. In particular, regarding new types of drugs, the agency plans to establish and operate a 'New Drug Response Council' to share crime intelligence and disrupt supply chains and distribution networks, while also expanding information sharing with relevant agenci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establish a permanent hotline system between immigration agencies nationwide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conduct joint crackdowns upon receiving intelligence regarding foreign nationals involved in drug offenses. During these joint operations, the plan includes verifying the identities of foreign nationals (status of stay, duration, and status of illegal residency), providing emergency protection for illegal immigrants, and imposing forced deportation or entry bans once the case is concluded. The government plans to respond to drug-related crimes that cause public anxiety without any lenience whatsoever.

Eradication of non-face-to-face distribution networks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swiftly block online sales and advertising posts and track distribution organizations and criminal funding sources to eradicate non-face-to-face distribution networks such as Telegram and the dark web.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s decided to pursue a joint investigation by consolidating the criminal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capabilities of eight agenc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police, and immigration offic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r Narcotic Crimes.

In addition, to block online distribution, we plan to conduct intensive crackdowns on distribution organizations utilizing the dark web and the internet through specialized investigation teams, expand the detection scope of the E-drug monitoring system, and crack down on distribution offenders through requests for the deletion and blocking of posts based on collected information and disguised transactions.

In addi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plans to completely block online narcotics distribution channels using virtual assets through a dedicated investigation system. Furthermore, it intends to cut off the momentum of distribution organizations by tracking down, freezing, and recovering illegal proceeds obtained through crime. Considering the nature of online distribution networks, which allow for rapid replication and dissemin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focus on fundamentally dismantling online distribution organizations by simultaneous blocking of posts and coordination with investigations, and by tracking them down to the highest levels. 〈중략, 한글 기사 33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3월 21일 더원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만 6세~14세 자녀를 둔 19가족(38명)을 대상으로 3월 가족놀이터 '마들렌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제과활동에 참여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일상 속에서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반죽을 직접 만들고 오븐에서 마들렌이 구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제과가 완성되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마들렌 특유의 '배꼽'이 형성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냈으며, 완성된 마들렌을 가족과 함께 포장하며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미있었다", "제과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 "직접 조리도구를 사용해 만들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의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송하성 기자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배우는 요리

평택시가족센터, 서부 요리 프로그램 '한 그릇이야기' 운영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0일과 24일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실습실에서 결혼이민자 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배우는 요리 프로그램 '한(韓)그릇 이야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음식 조리 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조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이 함께 요리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 이해와 관계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대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일본,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가정식 요리 실습을 중심으로 식재료 손질 및 보관 방법,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아귀찜과 깍두기, 동파육과 봄동겉절이 등 한국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메뉴를 직접 조리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며 식재료와 조리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요리 활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지원사업 한국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부·남부·서부 총 3개 권역에서 한국어교육을 개강했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은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등 총 6개 반을 운영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은미 센터장은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수준별 학습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1학기(3월~6월)와 2학기(9월~11월)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31-615-3966 송하성 기자

결혼이주민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중언어교육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6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중언어교육'을 개강했다.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은 결혼이주민 부모 출신국의 언어·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이중언어교육은 수준별로 중국어 3개 반, 베트남어 2개 반, 일본어 1개 반을 개설하고, 관내 65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또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온·오프라인 병행반과 오프라인 반으로 구성·운영되며, 병행반은 매주 2~3회 비대면 수업과 매월 1회 대면 수업을, 오프라인 반은 매주 3회 대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обуч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в которых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경기도 자녀 프로그램

Поддержка зарубежных стажировок для п одростков Кёнгидо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до 9 апреля проводит набор 105 участников в программу «Лестни ца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2026».

«Лестница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 это программ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поддержку по дростков из семей с трудным материальны м положением. 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м возм ожность зарубежной стажировки и знакомст ва с жизнью за границей, помогая в выборе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и личностном развитии.

Участникам полностью оплачиваются рас ходы на перелёт,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об учение, а также все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п одготовительным и последующим обучение 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тоимости оформления паспорта и визы).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е обучен 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4 по 7 июня на кампус е Gyeonggi Future Education в Паджу и прод лится 3 ночи и 4 дня.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тр енинг по адаптации за рубежом, составлени е плана л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и разработка ком андных проектов.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подростки, которые н а момент публикации объявления зарегистр ированы как жител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от носятся к одной из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й: п олучатели базов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особия, с емьи из группы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часанви), а также подростки из семей с одним родите лем, име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этом году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подростки, родившиеся в 2009–2011 годах, при условии отсутствия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выезда за гран ицу и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 части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о 17:00 9 апре ля на сайте Института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рот яжении всей жизн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gill. or.kr).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и прохо ждения собесед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ы отбор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15 мая. Финально отобран ны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примерно трёхнедельную зарубежную стаж ировку в Канаде, включая знакомство с мес тной культурой и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офессион 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Сервис доставки обучающи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младенцев и детей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начинает приём заяво к н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 ммы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и ра 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игры дома. Программа пре 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чебных мат ериалов и игровых набор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 их этапам развития младенцев и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Отобранные семьи получат обучающие м атериалы и игровые пособия стоимостью ок оло 34 000 вон на семью,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ос тавлены по почте.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о нлайн-контент дл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 я через игру. Желающие семьи могут допол нитель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игре и углублённый коучинг через специали стов по игровому развитию, работающих в г ородах и уездах. Основная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не просто предоставить материалы, а по мочь созд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ую игровую среду в семье через сопровожд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 в.

Первый этап приёма заявок ориентирова н на уязвимые семьи и семьи приоритет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30 марта по 12 апреля.

Поддерж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емьям, про живающим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воспиты вающим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35 месяце в, включая: ▲ получателей базового социал ьного пособия; ▲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 семьи с одним родителем; ▲ семьи с новоро ждёнными детьми; ▲ семьи, где ребёнок вос питывается дома (без посещения детских у чреж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иём заявок для обычных семей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позж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 аммы.

Семьи из уязвимых категорий могут полу 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через местные администрат ивные центры соц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 я. Семьи, воспитывающие детей дома, могу т подать заявку через сайт Северного центр а поддержки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провинции К ёнгидо (url.kr/pxb28b) в разделе объявлений.

〈중략,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함께해요

평택시가족센터, 2026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교육 진행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 '영아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3월 14일 센터 108호 강의실에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영아기 아버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영아기 자녀를 둔 초보 아버지들이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단계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아기의 행동과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 방법과 육아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실제 육아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여 아버지들은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각자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였고, 강의와 토론을 통해 영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육아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영아기의 발달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 '아동기'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1일 센터 108호 강의실에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아동기 아버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자녀들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학년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등 초기·중기·말기 단계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다루며, 시기별로 요구되는 자녀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아동기의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과 정서 변화를 이해하고, 각 학년에 맞는 효과적인 훈육 방법과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 참여자는 "아이의 학년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상황에 맞는 훈육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부모교육, 사례관리, 아이돌봄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가족의 건강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 '유아기'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4일 센터 108호 강의실에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유아기 아버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아이의 발달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놀이 참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유아기의 발달 단계와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놀이 방법과 양육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실제 양육 사례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교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유익했다"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해주신 아버지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함께 하는 아버지학교 '청소년기'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1일 센터 108호 강의실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학교(청소년기 아버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자녀들의 발달 특징과 뇌 구조 변화 등 주요 특성을 이해하고, 이 시기 나타나는 감정 변화와 행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방법과 함께, 변화하는 시기에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기가 자녀의 자립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아버지의 이해와 지지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됐다.

또한 자녀에게 집중했던 에너지를 아버지 자신에게 돌려보는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함께 다루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참여 아버지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방법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청소년기 자녀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1인가구지원사업
건강돌봄프로그램
테니스 클래스
2026.04.17(금) ~ 06.19(금) | YG테니스2호점
모집대상
관내 거주 및 실질적 1인가구 10명
(등본, 학생증, 재직증명서, 부동산계약서, 명함 등
1인가구 확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
활동장소
YG테니스2호점(세교산단로101번길 114-3, 4층/실외코트)
* 단, 우천 시 YG테니스1호점에서 진행 예정
(동삭로 397, 삼익사이버아파트 상가동 지하1층)
신청 방법
①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 폼(QR코드 참조)으로 증빙서류 제출
활동일시
4/17(금) ~ 6/19(금) 매주 금요일 18:00~21:00 / 총 10회기
[1그룹] 18:00~19:30 / [2그룹] 19:30~21:00
* 두 그룹 중 가능한 일정 선택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활동 내용
테니스 그룹 레슨(테니스 강습 및 시합)
문의사항
가족지원팀 031-615-3962
1그룹 신청
2그룹 신청
★ 안내사항(필독!) ★
★ 전 회기 참여 가능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자 확정 전(교육 진행 10일 이내)까지 1인가구 증빙서류 미제출 시, '대기'로 접수됩니다.
★ 신청 후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2회 불참), 향후 활동의 지속 참여가 제한되며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후 화면에 표시되는 팝업 문구는 단순히 접수 순서일 뿐 확정 번호가 아니며(선착순X),
활동 참여 시 개인준비물 지참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준비물 : 개인 물통(텀블러), 운동화, 운동복)
증빙서류 제출
평택시가족센터


2026년 서부 부모아카데미
당당한 부모되기
구분 | 대상 | 프로그램 내용 | 운영일시 | 장소
부모교육 | 서부권역 거주자 중 7세~10세 자녀를 둔 부모 15명 (선착순) | 자녀의 발달단계 특성 및 기질이해 | 2026.4.17(금) 10:00-12:00 | 서부분소 307호
우리아이 사회성 향상 UP!! | 2026.5.22(금) 10:00-12:00
부모-자녀교육 및 집단상담 | 서부권역 거주자 중 7세~10세 부모-자녀 각 10명 (선착순) |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푸드테라피 | 2026.4.18(토) 10:00-12:00 | 서부분소 307호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향기(아로마)테라피 | 2026.5.23(토) 10:00-12:00
부모-자녀 체험활동 | 서부권역 거주자 중 7세~10세 자녀를 둔 부모-자녀 각 10명 (우수참여자 선정) | 농촌체험 및 작물수확 등 | 2026.6.13(토) 10:00-13:00 | 외암리민속마을 외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1. 신청일시: 2026.3.16(월) 09:00~
2.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3. 신청대상: 서부권역 거주자 중 7세~10세 자녀가 있는 부모
* 최소 3회기 참석가능한 경우 신청
* 3회기 이상 참여할 경우 부모-자녀 체험활동 우선순위 선정
4. 비용: 무료
5. 문의 : 통합지원팀 031-660-7471
평택시가족센터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부부행복 프로젝트
콜라주와 숲치유로 만드는
부부공감 이야기
대 상 | 관계회복을 원하는 부부 6커플
일 정 | 4월 11일(토) 10:00~17:00 /콜라주집단상담
4월 18일 (토) 10:00~15:00/숲치유
장 소 | 집단상담 : 상담분소 집단상담실(평택시 중리길 1)
숲 치 유 :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휴양림길 105-2)
신 청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문 의 | 031 - 647 - 3097
*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정(개별 연락) *
* 11일과 18일 모두 참여 가능 시 신청 가능 *
* 모든 일정은 자차 이동 *
* 점심식사는 18일 숲치유 프로그램 시에만 도시락 제공 *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기간:2026.06.01.(월) 9:00 ~ 06.30. (화) 18:00
*주말,공휴일(6월3일 지방선거) 제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 ~ 18세 다문화가족 자녀
(2008. 01. 01. ~ 2019. 12. 31. 출생자)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1회지급)
-NH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2026. 11. 30까지 사용)
신청장소
-평택시가족센터서부분소
(경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서부복지타운 3층 305호)
문의처
-통합지원팀 031-660-7477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닌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방법 : 1.지원자격확인
2.전화 후 방문예약 및 필수 구비서류확인
3.'평택시가족센터서부분소'에서 신청서 작성
4.'자녀'이름으로 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5.NH농협카드(실물)로준비
*예약 접수 후 방문/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

평택시가족센터, 평택통복시장 '조청 디저트 만들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3월 16일 평택통복시장 상인회에서 결혼이민자와 상인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청을 이용한 디저트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 식재료인 조청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조청의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활용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며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체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결혼이민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통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부모교육, 사례관리, 아이돌봄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가족의 건강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31-615-3952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으로 성장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발대식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4일 센터 서부분소에서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가족 자녀 멘티 및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발대식을 진행했다.

멘토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발대식은 흥미 분야와 거주지를 고려해 매칭된 멘토와 멘티가 처음으로 만나 상호 교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참여 동기를 공유하고, 한 해 동안 진행될 멘토링 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멘토를 대상으로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멘토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멘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자녀의 기질에 따른 양육 및 학습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지능검사 및 JTCI 기반 해석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어 진행된 보호자 간담회에서는 멘토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를 당부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멘토는 "한 해 동안 멘티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멘토링 활동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멘토와 멘티는 이날을 시작으로 학습지도와 심리·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퍼스트어린이치과, 어린이날 후원물품 전달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4일, 퍼스트어린이치과(원장 박기봉)와 함께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퍼스트어린이치과가 기탁한 총 400개의 후원물품은 평택시가족센터를 통해 관내 다양한 유형의 가정 및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퍼스트어린이치과 박기봉 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할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과 응원을 전하고 싶어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전달해주신 물품은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할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여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내외국인 문화소통프로그램 '글라스 아트 거울 만들기'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9일과 20일 센터 서부분소에서 다문화·비다문화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서부모음 아카데미 '글라스아트 거울 만들기'를 진행했다.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으로, 각종 체험활동과 나들이, 다문화 이해교육을 매개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상호 친밀감 형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글라스 아트의 기본 기법을 배우고, 준비된 도안 또는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활용해 거울을 제작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색유리를 활용해 개성 있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송하성 기자



'미래찾기' 통해 바리스타 자격취득 지원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多이룸'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미래찾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래찾기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돌아보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준비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가족센터의 모두家어울림에서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한국 정착 중·장기 단계의 결혼이민자 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자아존중감 향상 ▲미래 직업 이미지 탐색 ▲스트레스 및 갈등관리 ▲삶의 경험 정리 등 단계별 자기탐색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솔라리움 카드, 인생그래프, 미래 명함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에 대한 동기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바리스타 교육이 기대된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미래찾기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 단계가 될 수 있다"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생활적응 지원을 통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4월 한 달간 광견병 예방접종 다문화가족도 참여

광주시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 29개소에서 '2026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 해 지원된다.

광주시는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광견병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되며 보호자는 접종 비용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은 광주시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전화해 남은 백신 수량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접종은 백신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총 2천540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截止到5月15日，上半年政府将对毒品类实施联合特别管制

政府决定在5月15日之前实施为期两个月的泛政府毒品类联合管制。政府去年通过泛政府特别管制，查处了7666名毒品犯罪分子，没收了2703公斤毒品。<照片=法务部>

今年上半年的特别管制将摆脱单纯的揭发为主，推进▲切断国境阶段流入▲根除非面对面流通网▲铲除侵害民生的毒品类等3个主题的立体管制。让我们一起来了解韩国政府打击毒品的决心。

铲除侵害民生的毒品

政府为了铲除直接影响民生的毒品，消除毒品类犯罪氛围，计划以娱乐街一带、外国人密集地区等脆弱地区为对象实施可视性联合管制。

首先，警察厅将推进反映新型毒品、娱乐街一带、医疗用毒品类等犯罪动向的集中管制。特别是关于新型毒品，为了共享犯罪信息及切断供应网和流通网，将组成并运营"新型毒品应对协议体"，并计划扩大与相关机构的信息共享。

此外，在新学期等娱乐设施游客增加的时期，将与出入境外国人官署等一起组成各地区联合管制小组，在周末深夜等游客较多的时间段进行营业场所内部检查。另外，法务部计划构建全国出入境所属机关和相关机关之间的热线系统，在接到外国人毒品犯罪相关情报时实施联合管制。计划在联合管制时确认外国人身份(滞留资格、期限、非法滞留与否等)、紧急保护非法滞留者、案件结束后强制驱逐、禁止入境等。政府表示，对引发社会不安的毒品犯罪将"零容忍"。

杜绝非面对面流通网

政府为了根除Telegram、暗网等非面对面流通网，决定迅速切断网上销售及广告帖子，并追踪流通组织及犯罪资金来源。

大检察厅决定以毒品犯罪政府联合调查本部为中心，集结检察机关和警察、出入境外国人官署等8个机关的犯罪情报和调查资源，推进联合调查。

另外，为了切断网上流通，计划通过专门调查组集中管制利用暗网、网络流通组织，扩大E-drug监控系统的探测范围，要求删除或阻断以收集信息为基础的帖子及伪装交易等，实施流通犯罪管制。此外，警察厅计划通过虚拟资产专门调查体系，从源头上切断利用虚拟资产的网上毒品流通渠道。同时，将追踪通过犯罪获得的非法收益，同时冻结、回收，切断流通组织的动力。

〈중략,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용 안내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역
1)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2) 교육 과정 통역
3) 병원, 동사무소, 은행, 법원,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동행 통역
4)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관련 통·번역 지원 : 주거, 생계, 의료지원 등

번역
1)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학구부, 처방전 등
2) 이혼청구서, 양육비 청구서
3) 범죄경력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관련 서류 번역
4) 어린이집, 학교 가정통신문 등
★ 베트남어, 중국어 외 타언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번역 요청 시 인근 가족센터로 연계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1) 임신, 출산, 양육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
2) 국적취득 신청 , 친정부모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정보 제공
3) 광주시가족센터 관련 프로그램 안내 등
4) 고용센터 업무 :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 서비스 제공 및 신청 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등 통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외부 출장지원 등
* 다른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국어 통·번역사 : 070-4706-3744
베트남어 통·번역사 : 070-4706-3733

광주시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안내문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장 소 : 센터 제1교육장, 모두家교육장(배움터, 자람터)

교육단계		일 자	일 시	교육장소	비고
정규과정	기초반	2/24~6/30	매주 화·목 10:00~12:30	모두家교육장 자람터	대면교육
	즐거운한국어1	2/24~6/30	매주 화·목 10:00~12:30	모두家교육장 배움터	
	즐거운한국어2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모두家교육장 배움터	
	즐거운한국어3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모두家교육장 자람터	
	즐거운한국어 온라인 (고급)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온라인
특별과정	발음교정반	4/7~6/30	매주 화·목 10:00~12:00	추후 공지	대면교육
	토픽반	4/7~6/30	매주 화·목 10:00~12:00		
	국적취득준비반	2/27~7/3	매주 금요일 10:00~12:00	가족센터 2층 교육장	

- 기관 사정으로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사전 신청(전화, 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 교 육 비 : 전액 무료(단, 교재비 본인 부담)
○ 문 의 : 한국어교육 담당자 ☎ 070-4706-3742

※ 온라인 및 특별과정
-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 전 담당자 연락(070-4706-3742) 필수

광주시가족센터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제공

학부모님의 원활한 학교 소통을 돕기 위해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다문화 가정 학부모
2.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보호자
3. 외국어로 안내가 필요한 모든 가정
4. 관내 어림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1. 학교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 제공
 * 주요 안내문 및 공지사항 번역
 * 필요 시 개별 안내문 번역 지원
2. 학교 상담 통역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교사 간, 중도입국자녀와 교사 간 상담 통역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

이용절차
전화 신청 > 신청서 및 원본파일 전송 > 번역 후 회신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기타 언어는 별도 문의

비용
무료제공

문의
중국어 070-4706-3744
베트남어 070-4706-3733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 · 멘티 운영

멘토 · 멘티 서비스 이용 안내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이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대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신규등록 지원
★ 멘토가 센터 회원가입 안내

✓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멘토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 (병원, 우체국, 은행 등)
★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상담을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지원

신청방법 ★ 도움을 필요한 날짜의 최소 2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멘토에게 1대1로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멘토·멘티 활동 이용 가능

▸ 문의처 070-4706-3733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담당자

광주시가족센터

До 15 мая проводитс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пециальная операция по борьбе с наркотиками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в течени е двух месяцев — до 15 мая — про водить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е совмест ные провер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хо де аналогичной операции было зад ержано 7 666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с вязанных с наркотиками, и изъято 2 703 кг наркот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В этом году акцент смещается с п ростого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на к омплексные меры по трём направл ениям: ▲блокирование ввоза на гра нице, ▲ликвидация бесконтактных к анал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скорен ение наркотиков, наносящих вред н аселению.

Рассмотрим решимость правител 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борьбе с нарк отиками, о которой также должны з н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Искоренение наркотиков, нанося щих вред насе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вод ить наглядн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верк и в уязвимых районах — таких как р 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кварталы и районы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иностран цев —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наркотики, напрямую влияющие на жизнь люд ей, и искоренить атмосферу наркот ическ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Полици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усилен ные проверки с учётом меняющихс я тенденций преступности: новых в идов наркотиков, районов развлече ний и медицинских наркотических п репаратов.

Особенно по новым наркотикам б удет создан и управляться специал ьный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орган для о 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блокирования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и каналов распро странения,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я сот 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ведомствами.

Кроме того, в периоды увеличени я посещаемост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 аведений (например, начало учебн ого года)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реги ональные совместные группы с уча стием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органов. Пл анируются проверки заведений в ча сы пик — по выходным и поздно но чью.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здаст п остоянную «горячую линию» между иммиграционными органами и друг 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ри получении и нформации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с учас тием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я совместные рейды.

Во время таких проверок планиру ется: установление личности иност ранцев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срок, з аконность), экстренное задержание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после заве ршения дела — депортация и запр ет на въез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являет, что не б удет проявлять ни малейшей терпи мости к наркотическим преступлени ям, вызывающим тревогу у населен ия.

Ликвидация бесконтактных канал 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ля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аркотиков через Telegram, даркне т и другие онлайн-каналы правител ьство намерено быстро блокироват ь объявления о продаже и рекламу, а также отслеживать преступные ор ганизации и их финансовые потоки.

Прокуратура (Верховная прокурат ура)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р 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ъединяя ресурсы восьми ведомств, включая полицию и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службы.

Для блокировки онлайн-распрост ран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усиленные п роверки организаций, использующи х даркнет и интернет, расширение с истемы мониторинга E-drug, удален ие и блокировка публикаций на осн ове собр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ыявл ение преступников через операции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Полиция такж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 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систему ра сследований по виртуальным актив ам для перекрытия каналов распро странения наркотиков через крипто валюту. 〈중략,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민원콜센터 대기시간 안내'

광주시, 고객 편의 높이는 서비스 도입



광주시는 민원상담콜센터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콜센터로 전화를 건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재 상담 대기 인원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담 연결 전 대기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는 특정 시간대 상담 전화 집중으로 발생하는 통화 지연과 장기 대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음성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담원 연결까지의 예상 대기 인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시 콜백 기능을 통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민원상담콜센터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광주시, 7~8개월분 물량 확보 안내



광주시는 25일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차분한 대응과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광주시는 현재 충분한 재고와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종량제 봉투 재고량과 기계약 물량을 합쳐 앞으로 7~8개월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작 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격 급등설은 사실무근이며 공급 부족 우려 역시 현재 확보된 비축량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며 시민들의 과도한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판매소별 공급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통망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종량제 봉투를 선제적으로 제작·비축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현재 7~8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을 자세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필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천시가족센터 운영 협약

이천시는 지난 3월 11일 시장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와 이천시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으며,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향후 5년간(2026년 3월 16일부터 2031년 3월 15일까지) 이천시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천시장과 시 관계자,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 본부장 차용복, 오대일 센터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이천시 가족들을 위해 의류, 신발, 장난감, 학용품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천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가족 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협약 체결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3월 16일부터 수탁기관의 본격적인 센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맞춤형 운동·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지원

이천시(시장 김경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남부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운동·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지방Off 건강On(지방 줄이고 건강 찾자!)'교실과 임산부의 영양 관리를 돕는 '태교밥상(모자의 건강한 한 끼)'교실 프로그램을 구성해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지방Off 건강On' 프로그램은 3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비만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인력의 지도로 운동 및 영양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다.

'태교밥상' 프로그램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임산부 8명을 대상으로 임신기간에 도움이 되는 균형잡힌 영양 식단과 건강 요리 실습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비만 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관리에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운동·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031-6190-7281 이지은 기자

'이천평생학습축제' 4월 11일 개막...모두의 축제로 만든다

이천시가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대화합의 장 '제15회 이천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썸타는 축제, 이천에서 만나요'라는 슬로건으로, 4월 11~12일 이틀간 이천시청 모두의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전 세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이천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험, 전시, 판매, 공연, 먹거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준비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스 운영과 학습동아리 공연을 통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부스 신청 분야는 전시, 체험, 판매 등 3개 분야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학습동아리 공연은 연주, 노래, 댄스 등 무대 공연이 가능한 분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스 및 공연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서 양식은 이천시 평생학습 포털 내 소식정보(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참가자(팀)는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이천시, 노성산 자연휴양림 체류형 휴양단지 확대 조성

이천시는 설성면 수산리 산65-1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노성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212,995㎡ 규모의 가족휴양공원으로 기획되었으나, 사업 대상지인 산림청 소유 국유림의 사용 및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협의 결과, 국유림 전체 면적에 대한 토지 교환 및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해 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60,958㎡ 증가한 573,953㎡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공간 계획 수정, 휴양림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천시는 기존의 숲속 쉼터, 작은 도서관, 잔디광장, 어린이 숲놀이터 외에도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으로,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숙박과 체험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체류형 산림휴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문의 031-645-3847

이지은 기자

Triển khai đợt cao điểm kiểm tra, truy quét ma túy liên ngành toàn quốc trong nửa đầu năm đến ngày 15 tháng 5 전방위적 마약 단속 강화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triển khai chiến dịch truy quét ma túy liên ngành trên toàn quốc trong 2 tháng, kéo dài đến ngày 15 tháng 5.

Năm ngoái, thông qua đợt cao điểm kiểm tra đặc biệt liên ngành, Chính phủ đã bắt giữ 7.666 đối tượng liên quan đến ma túy và thu giữ 2.703 kg ma túy.

Đợt cao điểm kiểm tra đặc biệt trong nửa đầu năm nay sẽ không chỉ tập trung vào việc phát hiện, xử lý đơn thuần, mà sẽ triển khai chiến dịch kiểm soát đa chiều theo 3 chủ đề: ▲ngăn chặn ma túy xâm nhập ngay từ khâu biên giới ▲triệt phá mạng lưới phân phối không tiếp xúc (trực tuyến) ▲xóa bỏ ma túy xâm hại đời sống người dân. Chúng ta hãy cùng tìm hiểu quyết tâm của Chính phủ Hàn Quốc trong việc bài trừ ma túy – điều mà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cũng cần biết.

Xóa bỏ ma túy xâm hại đời sống người dân

Chính phủ sẽ tiến hành các đợt kiểm tra, truy quét liên ngành một cách công khai tại các khu vực dễ phát sinh tội phạm như khu vui chơi giải trí, khu vực tập trung đô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ằm xóa bỏ ma túy có ảnh hưởng trực tiếp đến đời sống người dân và loại bỏ môi trường phát sinh tội phạm ma túy. Trước hết, Cơ quan Cảnh sát Quốc gia sẽ triển khai các đợt kiểm tra, truy quét trọng điểm phản ánh xu hướng tội phạm đang thay đổi như ma túy mới, khu vực vui chơi giải trí và các loại ma túy dùng trong y tế.

Đặc biệt, đối với ma túy mới, cơ quan chức năng sẽ thành lập và vận hành "nhóm phối hợp ứng phó ma túy mới" nhằm chia sẻ thông tin tội phạm và ngăn chặn chuỗi cung ứng cũng như mạng lưới phân phối, đồng thời mở rộng việc chia sẻ thông tin với các cơ quan liên quan.

Ngoài ra, vào các thời điểm lượng người sử dụng các cơ sở giải trí tăng cao như dịp đầu năm học, cơ quan chức năng sẽ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thành lập các đội kiểm tra liên ngành theo từng khu vực, đồng thời tiến hành kiểm tra bên trong các cơ sở vào các khung giờ cao điểm như cuối tuần và đêm khuya.

Ngoài ra, Bộ Tư pháp sẽ thiết lập hệ thống đường dây nóng thường trực giữa các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trên toàn quốc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và khi thu thập được thông tin, tình báo liên quan đến tội phạm ma túy là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truy quét liên ngành.

Trong quá trình kiểm tra liên ngành, sẽ thực hiện xác minh danh tính người nước ngoài (tình trạng cư trú, thời hạn lưu trú, có lưu trú bất hợp pháp hay không…), áp dụng biện pháp bảo vệ khẩn cấp đối với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và sau khi kết thúc vụ việc sẽ tiến hành trục xuất cưỡng chế và cấm nhập cả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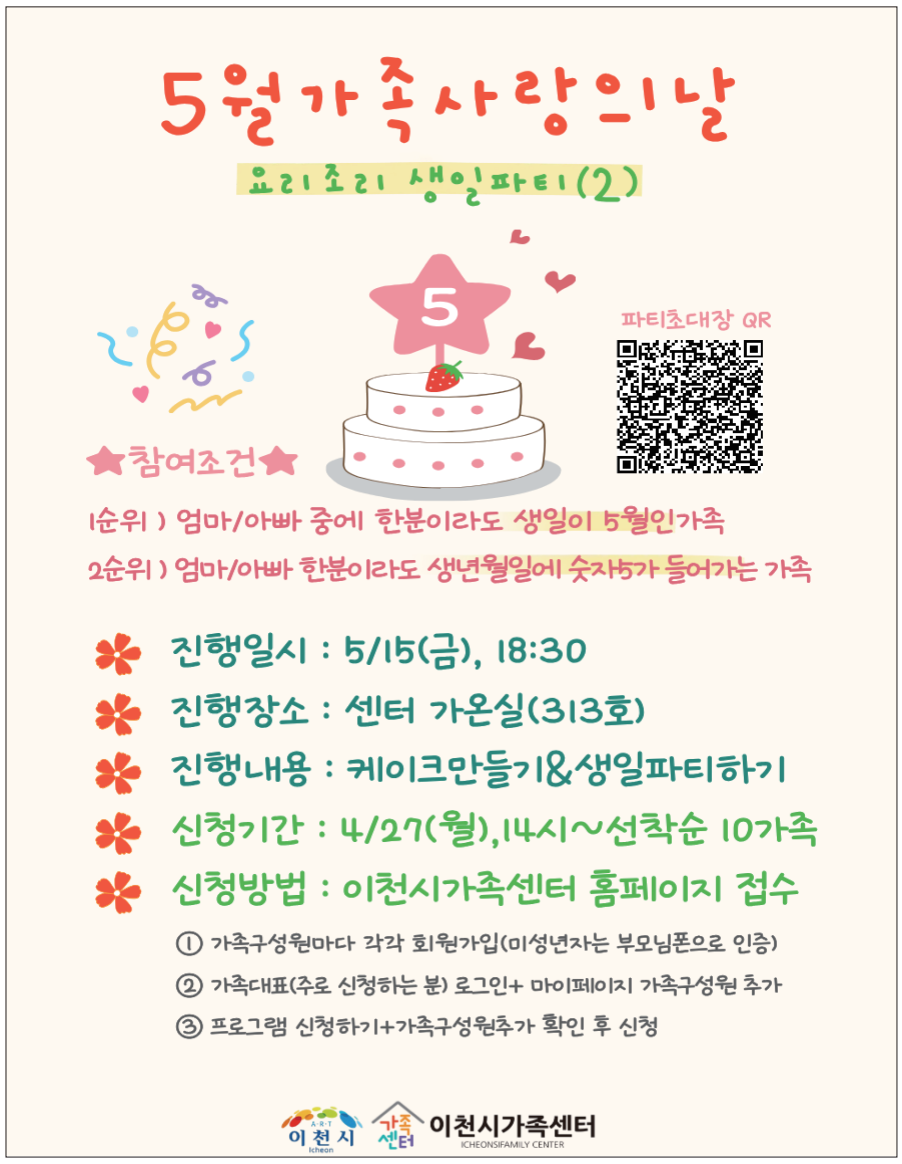
Chính phủ có kế hoạch sẽ xử lý nghiêm khắc các tội phạm liên quan đến ma túy gây bất an cho người dân, không có bất kỳ sự khoan nhượng nào.

Xóa bỏ mạng lưới phân phối không tiếp xúc

Chính phủ sẽ nhanh chóng chặn các bài đăng quảng cáo và bán hàng trực tuyến nhằm xóa bỏ các mạng lưới phân phối không tiếp xúc như Telegram, dark web…, đồng thời tiến hành truy vết các tổ chức phân phối và dòng tiền phạm tội.

Viện Kiểm sát Tối cao sẽ lấy "Ban Điều tra Chung Tội phạm Ma túy của Chính phủ" làm trung tâm, tập hợp thông tin tội phạm và năng lực điều tra của 8 cơ quan như viện kiểm sát, cảnh sát...〈중략,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 19일,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후 강의 시연·동료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다문화강사의 디지털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강의 기획 및 교육자료 제작에 중점을 두고 총 7회기에 걸쳐 심도 있게 운영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ChatGPT를 활용해 ▲수업 구성안 자동 생성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시각 자료 및 교안 제작 방법 등을 실습했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강의 시연 및 동료평가에서는 강사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설계한 강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강의의 적절성, 전달력, 대상별 맞춤성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수업 도입부 구성 등 현장감 넘치는 사례들이 공유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은정 센터장은 "전통적인 다문화 교육에 최신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강사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강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사회 내 문화 다양성 수용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파견사업'은 역량을 갖춘 다문화 강사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세계 문화와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4개국 출신 6명의 다문화 전문 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편견 없이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도록 돕고,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02-6265-1366 송하성 기자

광명시, 도심 속 힐링 공간 '시민주말농장' 본격 개장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28일 시민들에게 도심 속 영농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주말농장'을 개장했다. 올해 운영하는 시민주말농장은 하안동 소재 밤일농장과 노온사동 소재 애기능농장 등 총 2개소다.

광명시는 1구좌당 16㎡(약 5평) 규모로 총 465구좌를 시민들에게 분양했다.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듯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다.

농장별로는 밤일농장 384구좌, 애기능농장 81구좌를 배정했으며, 참여 시민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작 활동을 이어간다.

시민주말농장은 단순한 경작지를 넘어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밤일농장은 인근 밤일음식문화거리와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광명도서관, 어린이 독서 열기 잇는다...'책 읽는 슈퍼 히어로' 지속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푸름이어린이도서관에서 '책 읽는 슈퍼 히어로(Hero)' 성장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4년 12월 광문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제안과 2025년 2월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기획한 사업이다. '도서관 방문 시 적절한 격려와 보상이 있다면 아이들이 독서를 더욱 즐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건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운영 2년 차를 맞았다.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영상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현장 활동으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기획했다.

도서관을 어린이 히어로들의 '독서 성장 베이스캠프'로 설정해 도서관과 친밀도를 높이고, 건강한 독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참여 방식은 어린이가 도서 1권을 완독할 때마다 독서 기록을 작성해 확인받으면 '히어로 칭찬 도장'을 획득하는 구조다.

정기적인 습관 형성을 위해 도장은 하루 최대 3권까지만 인정한다. 누적 도장 개수에 따라 ▲새싹(1~5개) ▲모험(6~10개) ▲지식(11~30개) ▲지혜(31~50개) ▲슈퍼 히어로(51개 이상) 등 총 5단계로 성장하며, 단계별로 소정의 기념품과 기수 종료 후 '히어로 도전 증서'를 수여한다.

운영 기간은 1기(3월 10일~7월 31일)와 2기(8월 10일~12월 31일)로 나뉘어 연간 2회 진행하며, 푸름이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만 5세부터 13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은 "지역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체계화된 만큼,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도서관을 친근한 공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독서 생활화를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광명도서관 푸름이어린이도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02-2680-54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Chương trình đào tạo, bồi dưỡng giáo dục mà con em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tỉnh Gyeonggi cũng có thể tham gia 경기도 자녀 프로그램 안내

Hỗ trợ chương trình du học trải nghiệm nước ngoài cho thanh thiếu niên Gyeonggi

Tỉnh Gyeonggi đang tuyển chọn 105 người tham gia chương trình “Gyeonggi Youth Ladder 2026” đến ngày 9 tháng 4.

“Gyeonggi Youth Ladder” là chương trình hỗ trợ thanh thiếu niên có hoàn cảnh kinh tế khó khăn được tham gia đào tạo, trải nghiệm ở nước ngoài, qua đó giúp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và phát triển bản thân.

Người tham gia sẽ được hỗ trợ toàn bộ chi phí cần thiết cho toàn bộ chương trình như vé máy bay, chi phí ăn ở, học phí và các khóa đào tạo trước và sau (trừ chi phí làm hộ chiếu và vis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trước khi đi sẽ được tổ chức trong 4 ngày 3 đêm, từ ngày 4 đến ngày 7 tháng 6 tại Cơ sở Paju của Trung tâm Giáo dục Tương lai Gyeonggi. Nội dung bao gồm huấn luyện thích nghi tại địa phương, lập kế hoạch phát triển bản thân và xây dựng kế hoạch dự án nhóm, v.v.

Điều kiện đăng ký là thanh thiếu niên thuộc các đối tượng: hộ nhận trợ cấp sinh hoạt cơ bản, hộ cận nghèo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à gia đình đơn thân thuộc diện được hỗ trợ theo quy định, có đăng ký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tính đến ngày công bố. Năm nay, những người sinh từ năm 2009 đến 2011 có thể đăng ký và phải không có lý do bị từ chối tham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ở nước ngoài cũng như không có trở ngại trong việc cấp visa. Thanh thiếu niên có nguyện vọng tham gia có thể đăng ký trên trang web của Viện Xúc tiến Giáo dục Suốt đời tỉnh Gyeonggi (gill.or.kr) đến 17h ngày 9 tháng 4. Tỉnh Gyeonggi dự kiến sẽ công bố kết quả tuyển chọn vào ngày 15 tháng 5 sau khi tiến hành xét duyệt hồ sơ và phỏng vấn. Những thanh thiếu niên được chọn cuối cùng sẽ có cơ hội tham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ở nước ngoài tại Canada trong khoảng 3 tuần, trải nghiệm văn hóa địa phương và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Dịch vụ giao tài liệu học tập cho trẻ sơ sinh và trẻ nhỏ

Tỉnh Gyeonggi bắt đầu tiếp nhận đăng ký trong nửa đầu năm cho chương trình hỗ trợ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phù hợp với từng giai đoạn phát triển của trẻ sơ sinh và trẻ nhỏ, nhằm lan tỏa văn hóa vui chơi trong gia đình và tăng cường hỗ trợ nuôi dạy trẻ tại gia đình.

Các gia đình được lựa chọn sẽ được gửi qua bưu điện bộ tài liệu và đồ chơi học tập trị giá khoảng 34.000 won cho mỗi hộ, đồng thời được hỗ trợ nội dung giáo dục vui chơi trực tuyến (không trực tiếp).

Các gia đình có nhu cầu có thể đăng ký mượn đồ chơi và nhận tư vấn hướng dẫn chơi nâng cao thông qua các chuyên viên hướng dẫn vui chơi được bố trí tại từng địa phương (thành phố/quận). Điểm cốt lõi của chương trình không chỉ dừng lại ở việc hỗ trợ vật phẩm, mà còn kết hợp với tư vấn hướng dẫn chơi để hỗ trợ xây dựng môi trường vui chơi trong gia đình.

Đợt đăng ký lần 1 sẽ được tiếp nhận từ ngày 30 tháng 3 đến ngày 12 tháng 4, tập trung vào các gia đình thuộc hộ khó khăn và đối tượng ưu tiên.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các gia đình có trẻ sơ sinh và trẻ nhỏ từ 0 đến 35 tháng tuổi đang cư trú trong tỉnh, bao gồm: ▲hộ nhận trợ cấp sinh hoạt cơ bản ▲hộ cận nghèo ▲gia đình đơn thân ▲gia đình có trẻ sơ sinh mới sinh ▲gia đình nuôi con tại nhà (không sử dụng cơ sở giữ trẻ).

Sau đó, việc đăng ký bổ sung bao gồm cả các gia đình thông thường sẽ được thông báo riêng theo tiến độ triển khai của chương trình.

Đối với các gia đình thuộc hộ khó khăn, có thể nhận hướng dẫn thông qua Trung tâm Hành chính Phúc lợi tại nơi cư trú.

Các gia đình nuôi con tại nhà có thể đăng ký qua mục thông báo trên trang web của Trung tâm Hỗ trợ Nuôi dạy Trẻ tổng hợp khu vực Bắc Gyeonggi (url.kr/pxb28b).

Chương trình giáo dục sinh thái về động vật hoang dã

Tỉnh Gyeonggi bắt đầu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giáo dục sinh thái về động vật hoang dã” từ ngày 28 tháng 3, dành cho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trong tỉnh tại các Trung tâm Cứu hộ và Quản lý Động vật Hoang dã nằm ở Pyeongtaek và Yeoncheon.

Khi tham gia “Chương trình giáo dục sinh thái về động vật hoang dã”, người tham gia có thể trực tiếp trải nghiệm về hệ sinh thái của động vật hoang dã cũng như các hoạt động cứu hộ và điều trị. Chương trình không chỉ dừng lại ở tham quan đơn thuần mà được tổ chức với nội dung phù hợp theo từng độ tuổi, dựa trên các trường hợp động vật hoang dã đã được cứu hộ thực tế.

Việc tham gia chương trình giáo dục có thể đăng ký theo đơn vị lớp của nhà trẻ, mẫu giáo,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hoặc theo đơn vị gia đình, với khoảng 20 người mỗi buổi.

Để biết thêm chi tiết, bạn có thể tham khảo mục thông báo trên “Nền tảng Phúc lợi Bảo vệ Động vật Gyeonggi”...〈중략, 한글 기사 1면〉

광명시, '마을배움터'로 일상 속 학습권...4월 8일까지 모집 5개 권역 9개 프로그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권역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마을배움터는 광명시 내 5개 권역에서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역별 마을배움터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광명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모델'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취미·체험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인문학 기반 강좌를 대폭 보강했다. 시민들이 일상 속 배움의 즐거움을 넘어 삶과 지역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역별 특성화 방향을 강화해 배움의 질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미용 교실(뷰티 레슨) ▲성장과 치유를 위한 성격 유형 분석(에니어그램) ▲'힐링 시낭송 워크숍' ▲고무판화 ▲감성 수채 손글씨(캘리) ▲스마트폰 활용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생활밀착형 학습과 인문·문화 요소가 결합된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광명시 평생학습포털 '광명이(e)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3월 31일까지는 해당 권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를 받으며, 4월 1일부터는 광명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정원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최종 개강한다. 윤영희 평생학습원장은 "권역별 마을배움터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 학습 기회를 확대해 시민의 일상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좌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며 세부 일정은 강좌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학습협력팀(02-2680-6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빛을 품은 광명시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지원대상 11~18세 광명시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여성청소년 (2008.1.1.~2015.12.31.출생)

지원금액 연 최대 142,000원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 (2026년 이후 전입자는 금액상이)
(광명사랑화폐 생리용품 전용 모바일카드)

신청기간 (온라인)(1차) 2026. 3. 5. 10:00 ~ 3.31.
(방문)(1차) 2026. 3. 4. ~ 6. 30.
※ 1차, 2차 나누어 접수예정이며, 2차 접수기간 추후 안내예정

신청방법 15세 이상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주 양육자가 신청
(온라인) 경기민원24사이트(https://gg24.gg.go.kr)
(방문) 청소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인 신분증 및 증빙서류 필요)

사용처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또는 배달특급 어플 연계 생리용품몰

유의사항 지원금은 2026.12.31.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자동소멸됩니다
이전 신청자도 매년 새로 신청하셔야 하며 연1회만 하시면 됩니다

문의 | 광명시청 콜센터(☎1688-3399)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02-2680-2385, 2126)

광명시 가족센터

경기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동화와 원예가 어우러진 특별한 프로그램'

동화 속 작은 정원 이야기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 경기육아나눔터에서 함께해요♡'



참여대상	5세 이상 ~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와 보호자(6가족) ※ 신규 참여 가정 우선 선정
운영일정	2026. 4. 13.(월) ~ 4. 15.(수), 4. 27.(월) ~ 4. 29.(수) 16:00 ~ 17:00 (나눔터별 2회기 / 2회기 필수 참여)
신청기간	~2026. 4. 6.(월) 17:00까지 / 선정자 개별 연락 예정
운영장소	광명시경기육아나눔터 3곳 (철산, 역세권, 써밋나눔터)
참 가 비	무료프로그램 ※ 1가족당 재료 1세트 제공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gmfc.familynet.or.kr) -> 프로그램신청 -> '동화 속 작은 정원 이야기' (참여자 모두 신청)
문 의	02-2060-0453 (이희선 사회복지사)



꽃이 피어난 우리집 센터피스



컬러몬스터 꽃도시락



성평등가족부

온가족 보듬사업



온가족보듬

온가족보듬사업은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취약 · 긴급 위기 가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구분 /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학습정서지원	미취학 아동 초중 재학생 자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1:1 자기주도 학습지도 정서지도 등	보듬매니저 가정방문 주 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 만 65세 이상 노부모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지원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심리정서 지도 긴급돌봄지원 전문상담 연계 등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지원
가족상담	개인, 부부, 부부-자녀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중인 가족에게 건강한 관계 개선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원	상담전문인력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자조모임	비슷한 경험의 구성원과 정보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모임		

☎ 상담문의: 02-2686-0435 온가족보듬사업 담당자

가족의 일상 회복, 여기서 시작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새학기 새출발~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신청하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 3.~12. 11.	3. 9.~12. 11.	3. 16.~12. 11.
지원금 10만 원	지원금 20만 원	지원금 30만 원



-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1인
- 지급기간 : 서류 접수 후 3주 이내 지급
- 문의사항 : 교육청소년과(02-2680-2385, 2102)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노·사 협력으로 아이돌보미 최종 협약

광명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단체교섭 협약식' 진행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 24일 광명시청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단체교섭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25년 1월 아이돌보미 노동조합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시작되어, 같은 해 5월 사전교섭을 거쳐 총 11차례에 걸친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광명시가족센터와 아이돌보미 측은 매월 지속적인 교섭을 이어가며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총 8장, 42개조 조문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 했다.

무엇보다 2025년 11월에는 협약서 제8조 '정년'에 대해 우선합의를 도출했다. 해당 정년제도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만 68세 이상 아이돌보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년 퇴직하게 된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제안과 아이돌보미들의 투표 및 동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센터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아이돌보미 조합활동 보장 ▲정년제 운영 ▲임금 및 수당 ▲문화·체육행사 지원 ▲교섭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2026년 3월 13일에 열린 제11차 단체교섭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큰 갈등 없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조합 측 대표는 "아이돌보미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광명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은정 센터장은 "아이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협약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권익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02-2625-0365

이지은 기자

광명시 철산도서관 '상반기에 독서 아카데미' 9개 강좌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 철산도서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상반기 시민독서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시민독서 아카데미는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능동적인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모든 배움의 근간인 '독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도서를 기반으로 읽기·글쓰기·토론·표현 활동으로 이어지는 확장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좌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9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성인 대상 강좌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4개 과정으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독서토론지도사 자격 과정 ▲시작(詩作), 소중한 일상을 남기는 짧은 시 ▲내 아이를 위한 부모 독서코칭 ▲문학으로 배우는 글쓰기를 진행한다. 특히 '문학으로 배우는 글쓰기'는 직장인들의 참여를 고려해 저녁 시간대에 편성했다. 어린이 대상 강좌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5개 과정이다. ▲그림책 연극 놀이터 ▲초등 고전 읽기 ▲동화 속 과학 실험실 ▲영어책이랑 놀자 ▲생각이 커지는 문해력 교실 등 체험과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4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하며, 광명시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은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배우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평생학습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02-2680-6028

이지은 기자

광명시민이 도시 바꾸는 배움의 장 연다...4월 1~22일 광명이(e)지서 학습자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이 배우고 실천하며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학습도시 기반을 넓힌다.

광명시는 2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광명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학장·학과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교육 비전과 학과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광명자치대학을 이끌 5개 학과장 위촉식에 이어 교육철학과 운영 기조를 점검하고, 학과별 교육과정 구상과 지역 연계 실행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학과별 배움이 강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과 현장으로 이어져 시민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2026년 광명자치대학은 민주시민학과, 마을공동체학과, 탄소중립학과, 사회연대경제학과, 정원도시학과 등 5개 학과로 운영한다.

각 학과는 광명시의 주요 정책 가치와 도시 비전을 반영해 구성했으며, 시민이 지역을 읽고 스스로 변화를 기획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광명자치대학은 학과별 정원 25명씩 총 125명 규모로 운영한다. 5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본과정을 진행하고, 이후 성과공유와 지역사회 연계 실천까지 이어가 시민의 배움이 지역 변화의 동력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명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광명이(e)지(LLL.g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민 누구나 관심 있는 학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정영희 마을공동체학과장은 "광명자치대학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잇는 살아 있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천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은 곧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고, 실천은 도시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광명자치대학이 시민이 스스로 배우고 연결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성장의 장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 역량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3월 21일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성남의 인구 밀집지역인 모란역과 야탑역에서 '차별 대신 희망을 심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씨앗 화분을 나누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4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인종차별 철폐에 동참하겠다는 서명과 함께 씨앗 화분을 받아갔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외국인주민이 봉사자로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성남시가족센터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증진은 물론,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1-754-7070 송하성 기자

성남시,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재난예방시설 지원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4월 1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Gyeonggi-do can also participate in 경기도의 자녀 프로그램 안내

Gyeonggi Youth Overseas Training Support

Gyeonggi Province is recruiting 105 participants for the '2026 Gyeonggi Youth Ladder' project until April 9.

The 'Gyeonggi Youth Ladder' is a program that supports career exploration and self-development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overseas training and local experiences to youth facing economic hardship.

Participants are fully covered for the entire trip, including airfare, accommodation, meals, training fees, and pre- and post-program activities (excluding passport and visa application fees). The pre-program training will take place for four days and three nights from June 4 to 7 at the Gyeonggi Future Education Paju Campus, covering local adaptation training, self-development planning, and team project planning.

Eligibility is open to youth who are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upport, the legally designated near-poverty group, or legally designated single-parent families, and who are registered residents of Gyeonggi-do as of the announcement date. This year, those born between 2009 and 2011 are eligible to apply, provided they have no disqualifying factors for overseas training or visa issuance.

Youth wishing to participate can apply on the Gyeonggi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website (gill.or.kr) by 5:00 PM on April 9.

Gyeonggi Province plans to announce the selection results on May 15 following document and interview screenings. The finally selected youths will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overseas training in Canada, local cultural experiences, and career explor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Material Delivery Service

Gyeonggi Province has begun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for a support program provid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tools tailored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infants and toddlers, aimed at spreading a culture of play within the home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home-based childcare.

Selected families will receive educational materials and tools worth 34,000 won per household via courier, along with non-face-to-face play education content. Interested families can apply for toys and advanced play coaching through play instructors stationed in their respective cities and counties. The core of the program is to go beyond simple material support and help create a home play environment by linking it with play coaching.

The first round of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from March 30 to April 12,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and priority support households. Eligible recipients are households residing in Gyeonggi-do with infants and toddlers aged 0 to 35 months, including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upport, those in the near-poverty bracket, single-parent families, families with newborns, and families providing home-based childcare (not utilizing childcare facilities). Subsequent additional applications, including those from general households, will be announc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schedule.

Vulnerable groups can receive guidance through their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while families providing home-based childcare can apply via the notice board on the Gyeonggi Northern Childcare Support Center website (url.kr/pxb28b). 〈중략,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성평등가족부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성남시가족센터

4월 OPEN !!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안내







이용 대상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와
보호자(성인) 동반 이용
※ 자녀 맡기기, 자녀만 이용은 불가합니다.

장소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57,
고등마을 102동 주민복지관 내)

이용 방법

전화(☎ 031-755-9327) 또는
네이버 예약 후 이용 (당일예약 가능)

놀이공간 예약하기

이용 시간

구분	이용시간
1회	10:00~11:30
2회	13:30~15:00
3회	14:00~15:30
4회	16:00~17:30

※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이용 불가
- 매주 수 3, 4회차 / 목 1회차

문의

☎ 031-755-9327(내선 1번)



성평등가족부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성남시가족센터

4월 월요 도담나눔터

"정서발달에 좋은 클래식을 활용한 즐거운 음악놀이"

음악이랑 놀자, 음악놀이터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1주차(4/6) 동물원으로" "2주차(4/13) 꼬물꼬물 애벌레" "3주차(4/20) 친구네 집에 놀러가요" "4주차(4/27) 폴짝 개구리"

참여 가족 모집

운영 장소 : 수진동 공동육아나눔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진행 일정 : 4월 6일(월), 13일(월), 20일(월), 27일(월)
16:00~17:00(4회기)
모집 대상 : 성남시 거주 12~24개월 자녀와 부모 (1:1)
모집 기간 : 3/17(화) 11시부터 ~ 3/31(화) 16시까지
신청 방법 :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seongnam.familynet.or.kr)
→부모,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가족회원 추가 필수)
문의 사항 : 031-755-9327 (내선 1번)

성남시가족센터

성남시가족센터

4월 목요 도담나눔터

감성놀이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연물 감성놀이 활동

– 참여가족 모집안내 –

모집대상 성남시 거주 7~13개월 자녀와 부모
※부모·자녀 일대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장소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57, 고등마을 102동 주민복지관)

진행일정 4월 매주 목요일 10:20~11:00 총 4회기

4/9(목)	4/16(목)	4/23(목)	4/30(목)
별다방	버터플라이 가든	장이 튼튼 요거트	꼬끼오네 병아리
"바리스타로 변신~ 신나는 커피놀이"	"렌틸콩과 함께 즐거운 꽃놀이"	"장이 튼튼 요거트 촉감놀이"	"꼬끼오로 변신~ 병아리콩 놀이"

모집기간 3/17(화) 11시부터 ~ 3/31(화) 16시까지

신청방법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 홈페이지 - https://seongnam.familynet.or.kr
필수① 신청전 주요안내사항 꼼꼼히 읽어보기
필수② 부모,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필수③ 마이페이지에서 가족회원 반드시 추가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문의사항 031-755-9327(내선 1번)

<성남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부모-자녀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향상을 위해 매월
다양한 주제의 문화활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성남시가족센터

4월 수요 도담나눔터

음악놀이터

" 정서발달에 좋은 클래식을 활용한 즐거운 음악놀이"



참여가족 모집안내

모집대상 성남시 거주 12~24개월 자녀와 부모
※부모·자녀 일대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장소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57, 고등마을 102동 주민복지관 내)

진행일정 4월 매주 수요일 16:00~17:00 총 4회기

4/8(수)	4/15(수)	4/22(수)	4/29(수)
동물원으로	꼬물꼬물 애벌레	친구네 집에 놀러가요	폴짝 개구리
"동물을 표현하며 랄랄라 동물 악기놀이"	"동글동글 완두콩과 애벌레 악기놀이"	"색깔놀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리듬놀이"	"개구리로 변신~ 신나는 우드악기 연주"

모집기간 3/17(화) 11시부터 ~ 3/31(화) 16시까지

신청방법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 홈페이지 - https://seongnam.familynet.or.kr
필수① 신청전 주요안내사항 꼼꼼히 읽어보기
필수② 부모,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필수③ 마이페이지에서 가족회원 반드시 추가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문의사항 031-755-9327(내선 1번)

<성남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부모-자녀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향상을 위해 매월 다양한 주제의
문화활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성남시가족센터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봄을 맞아요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와 힙팟 만들기 행사 예고...과일타르트 만들기도 진행



지구촌 어울림 축제, 5월 10일 개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오는 5월 10일 성남시청 광장 일대에서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민과 외국인주민 약 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축제에서는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되는 기념식을 비롯해 국기퍼레이드, 세계문화체험, 세계음식체험, 국가별 공연 등 내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행사는 오후 2시 기념식을 거쳐 4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의 031-754-7070

아빠와 함께하는 힙팟(Hip Pot) 만들기

성남시가족센터는 4월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힙팟(Hip Pot) 만들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힙팟(Hip Pot) 만들기를 주제로 센터 교육실3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 거주 7세~13세(2014년~2020년 출생) 자녀와 아버지(1:1) 등 15가족이 참여할 예정이다. 031-756-9327(내선 1번)

아빠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뿐인 미니 화분을 완성하는 감성 공예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부족한 소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현재 온라인 선착순 접수가 진행 중이다. 신청은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3월 가족사랑의날 '과일타르트 만들기'

성남시가족센터는 3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과일타르트 만들기'를 진행했다.

7~13세 자녀와 부모가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봄을 맞이하여 상큼달달한 제철 과일을 탐색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가족 과일타르트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직접 과일을 손질하고 타르트지 위에 다양하게 꾸미는 활동을 통해 가족마다 개성있는 과일타르트를 만들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참가자들은 "아이와 함께 즐겁게 얘기하면서 맛있는 타르트를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타르트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031-755-9327(내선 1번)

성남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와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 자녀 심리정서 지원

성남시가족센터-마인드온발달심리상담센터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3월 24일 마인드온발달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한희)와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종합심리검사 및 과목별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련 검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했던 가정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중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가족 행복 위해 손 잡아요

성남시가족센터-더마크월드, MOU 체결



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9일, (주)더마크월드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의 심리·정서적 복지 증진 및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양한 가족 대상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안내 ▲공동 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협약의 첫 행보로 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족센터는 센터장과 총괄팀장, 각 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브릭웨이 워크숍'을 진행했다.

(주)더마크월드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LEGO SERIOUS PLAY(LSP) 방법론과 '9WAY 강점 진단 도구'를 활용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관리자들은 레고 블록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시각화하고, 개별 강점 진단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통 방식과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센터 내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고 가족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부 결속을 다졌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다문화자녀 리더십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가족센터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동력 삼아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와 행사, 참여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용문산 산나물 축제, 양평 물소리길 함께 걷기 등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집

양평군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을 시작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치유농업서비스 등 총 4개 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770-2214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양평군의 대표축제인 '제16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양평 용문산 관광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내 식탁이 임금님 수랏상,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참여 확대 ▲축제 정체성 강화 ▲축제 경험 확장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며 축제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겁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4일 개막식에서 〈동국여지지〉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임금께 산나물을 올리던 장면을 재현한 ▲진상 행렬이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양평군에 있는 각 읍면의 장점을 홍보하는 ▲홍보사절단 길놀이를 더하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더한다. 그 밖에도 ▲초대형 산나물 비빔밥 퍼포먼스 ▲천하제일 산나물 자랑 라이브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5일에는 대한민국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요리 행사도 펼쳐진다.

양평 물소리길 함께 걷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9일, '물소리길 5코스(용문역-원덕역)'에서 물소리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물소리길 함께 걷기' 행사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연간 총 8회 진행된다. 물소리길은 경의중앙선 전철역과 연결된 걷기 코스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4월 26일(일)에 진행되는 6코스(용문역-용문산) 도착지인 "용문산"의 경우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산나물 축제의 장으로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하는 첫 대상지로 양평 등 4개 시군 선정해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 대상지로 양평군, 파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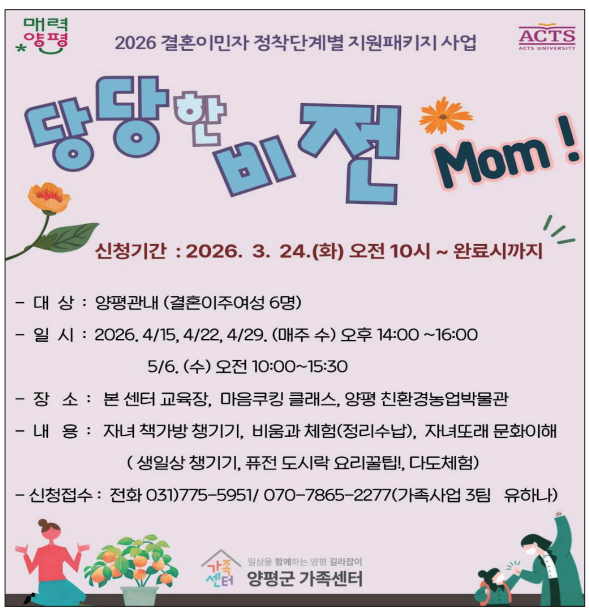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대상지로 선정된 양서면의 면사무소가 오래돼서 그곳을 이전 하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이 2년 정도 됐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노인대학, 파크골프장 등 다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기획을 냈다"면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평군이 최선을 다해 수도권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양평군 용담리 일원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사업은 2,452㎡ 부지에 지상1~4층으로 노인복지관, 공공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 고령자 복지와 아동 돌봄 기능이 결합된 세대 통합형 생활SOC 시설을 구축한다.

송하성 기자







가족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김포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방방곡곡' 3월 활동 진행해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 모두가족봉사단 '방방곡곡'이 지난 3월 22일, 2026년 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방방곡곡'은 장애인생활시설 가연마을과 협력해 운영되는 가족 참여형 봉사단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가족 단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활동에 앞서 봉사단은 3월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오리엔테이션(OT)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 연간 활동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했으며, 플로깅 활동 방법과 안전 수칙,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장애인학대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해 참여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3월 22일에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김포국제조각공원에서 '방방곡곡'의 첫 활동이 진행됐다. 참가 가족들은 공원 일대를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건강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천하며, 봉사단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천했다.

조미정 센터장은 "모두가족봉사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의미 있는 봉사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족봉사단 '방방곡곡'은 김포 지역 내 다양한 공원을 찾아가며 정기적인 플로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사업2팀(031-996-5923)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벚꽃 인생샷은 김포
2026 김포 벚꽃축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오는 4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이틀간 김포 대표 벚꽃 명소인 계양천 산책로 일원에서 '2026 김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벚꽃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관람객 중심의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축제 기간 계양천 일대에는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포토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벚꽃 쉼터 등이 마련돼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학적 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야간에도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 구간을 약 200미터 연장 설치해 봄밤의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법무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한다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 비대면 유통망 근절,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등 다양한 노력

정부는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7,666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2,703kg을 압수했어요.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외국인주민도 알아야 할 마약 척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게요.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약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먼저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망과 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또한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및 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마약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막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겠어요.

〈중국어 19면, 베트남어 23면, 러시아어 21면, 태국어 6면, 영어 13면〉 파파야스토리

โครงการฝึกอบรม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ที่บุตรหลาน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ได้

การสนับสนุนโครงการศึกษาดูงาน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ำลังเปิดรับสมัครผู้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 "บันไดเยาวชนคยองกี ปี 2026" จำนวน 105 คน จนถึงวันที่ 9 เมษายน

"โครงการบันไดเยาวชนคยองกี"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มอบ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ศึกษาดูงาน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ประสบการณ์ภาคสนามในต่างแดน ให้แก่เยาวชนที่มีข้อจำกัดด้านเศรษฐกิจ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ค้นหาเส้นทางอาชีพและการพัฒนาตนเอง

ผู้เข้าร่วม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ที่จำเป็นตลอดโครงการทั้งหมด เช่น ค่าตั๋วเครื่องบิน, ค่าอาหารและที่พัก, ค่าใช้จ่าย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 รวมถึงการอบรมก่อนและหลั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ยกเว้นค่าทำ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และค่าวีซ่า) การอบรมก่อนเดินทางจะจัดขึ้นระหว่างวันที่ 4~7 มิถุนายน 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 3 คืน 4 วัน ที่วิทยาเขตพาจูของศูนย์การศึกษาอนาคตคยองกี โดยจะมีการฝึกการปรับตัว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การวางแผนพัฒนาตนเอง, และการจัดทำแผนโครงการกลุ่ม เป็นต้น คุณสมบัติผู้สมัคร คือ เยาวชนที่มีทะเบียนบ้าน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ณ วันที่ประกาศ และเป็นผู้ได้รับสวัสดิการพื้นฐาน, ผู้ที่อยู่ในกลุ่ม รายได้น้อยตามกฎหมาย, หรือเยาวช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เลี้ยงเดี่ยวที่อยู่ในข่าย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ามกฎหมาย สำหรับปีนี้ ผู้ที่เกิดระหว่างปี 2009~2011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และต้องไม่มีข้อจำกัดที่เป็นอุปสรรคต่อการ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ศึกษาดูงาน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หรือการออกวีซ่า

เยาวชนที่ต้องการเข้าร่ว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ผ่านเว็บไซต์ของสถาบันส่งเสริมการศึกษาตลอดชีวิ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gill.or.kr) ภายในวันที่ 9 เมษายน จนถึงเวลา 17:00 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คัดเลือกผ่านการพิจารณาเอกสารและการสัมภาษณ์ และมีกำหนดประกาศผลผู้ผ่านการคัดเลือกในวันที่ 15 พฤษภาคม เยาวชนที่ผ่านการคัดเลือกขั้นสุดท้ายจะได้รับโอกาส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ศึกษาดูง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คนาดาประมาณ 3 สัปดาห์ พร้อมทั้งการสัมผัสวัฒนธรรมท้องถิ่น, และการสำรวจเส้นทางอาชีพ เป็นต้น

บริการจัดส่งสื่อการเรียนรู้สำหรับเด็กเล็ก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เริ่มเปิดรับสมัคร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อการเรียนรู้และอุปกรณ์การเรียนที่เหมาะสมตามช่วงพัฒนาการของเด็กเล็ก ประจำครึ่งปีแรก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เล่นภายใน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เลี้ยงดูเด็กในครัวเรือนให้เข้มแข็งยิ่งขึ้น

ครัวเรือ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ดเลือกจะได้รับสื่อการเรียนรู้และอุปกรณ์การเรียนมูลค่าประมาณ 34,000 วอนต่อครัวเรือน โดยจัดส่งทางพัสดุ พร้อมทั้งสนับสนุนเนื้อหาการเรียนรู้ผ่านกิจกรรมการเล่นในรูปแบบออนไลน์ควบคู่กันไป

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สนใจ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รับของเล่นและการโค้ชชิ่งการเล่นเชิงลึกผ่านครูผู้แนะนำการเล่นที่ประจำอยู่ในแต่ละเมืองและเขต จุดสำคัญ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คือ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ารเล่นภายในครอบครัว โดยไม่ใช่เพียงแค่การให้สิ่งของเท่านั้น แต่เชื่อมโยงกับการโค้ชชิ่งด้านการเล่นควบคู่กันไป

การเปิดรับสมัครรอบแรกจะเน้นครัวเรือน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และกลุ่ม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ป็นลำดับแรก โดยเปิดรับสมัครตั้งแต่วันที่ 30 มีนาคม ถึง 12 เมษายน 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คือครัวเรือนที่มีเด็กเล็กวัยอายุ 0~35 เดือน ที่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 โดยประกอบด้วย▲ผู้ได้รับสวัสดิการพื้นฐาน ▲กลุ่มรายได้น้อยตามกฎหมาย ▲ครอบครัว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รัวเรือนที่มีทารกแรกเกิด ▲ครัวเรือนที่เลี้ยงดูเด็กที่บ้าน (ไม่ได้ใช้บริการ สถานรับเลี้ยงเด็ก) เป็นต้น หลังจากนั้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สมัครเพิ่มเติม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วไปจะ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แยกต่างหากตามแผน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 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

สำหรับ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 สามารถรับข้อมูลแนะนำได้ผ่านศูนย์บริ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การปกครองในพื้นที่ที่อยู่อาศัย ส่วนครัวเรือนที่เลี้ยงดูเด็ก ที่บ้าน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ผ่านประกาศบนเว็บไซต์ของ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ดูแลเด็ก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ภาคเหนือ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url.kr/pxb28b)

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ศึกษาเชิงนิเวศเกี่ยวกับสัตว์ป่า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เริ่มโครงการ "การศึกษาเชิงนิเวศเกี่ยวกับสัตว์ป่า" ตั้งแต่วันที่ 28 มีนาคม ที่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สัตว์ป่า ซึ่งตั้งอยู่ในเมืองพย็องแท็ก และยอนชอน...〈중략, 한글 기사 1면〉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안내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무료 가족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상담 대상	김포시민(개인 및 가족), 심리검사 무료지원(선착순 50명)
상담 내용	개인문제 및 가족갈등 (개인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상담)
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금 10:00~18:00 야간상담 : 화 18:00~21:00 주말상담 : 토 9:30~14:30
상담 방법	주 1회/50분 상담(6회기 무료상담)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대기-상담사연계-대면상담 진행 (대곶센터)
신청 방법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구분/가족상담)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 모두 신청)
문 의	가족사업3팀 031-996-5921

김포시가족센터

2026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3.27 - 4. 3

모집대상

▶ 결혼이민자 5명 이상의 그룹
총 1개 그룹 모집

활동내용

1. 26년 4월 ~ 12월 (월 2회 이상 활동)
- 자기계발, 문화활동, 자녀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 구성
2. 4월 오리엔테이션12월 전체모임 필수 참석

활동혜택

1. 그룹별 활동비 월 최대 50,000원 지급
2. 센터(구래) 교육실 무료 대관

신청방법

▶ 우측 하단 QR코드 접속 → 신청서 다운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제출 : gimpomfc@daum.net
▶ 방문 제출 : 김포시가족센터(구래)
(김포한강4로 564)

문의사항

031-996-5923 가족사업 2팀



김포시가족센터

FULL LIFE GMPO



2026년

내·외국인 청소년 독서토론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는 내·외국인 청소년들이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1기: 4월 매주 수요일 15:30~17:30 (총5회)
2기: 8~9월 매주 토요일 10:30~12:30 (총5회)

신청대상

기수별 김포관내 내·외국인 청소년
(초등 1학년 ~ 중등 3학년) 선착순 30명

교육장소

김포미래그린공유학교(1기 남부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2기 북부권)

접수방법

구글 폼 온라인 신청
※ 신청하신분들께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QR코드

문 의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번길 24-11)
이주배경청소년교육지원팀 070-4113-4608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GMPO

평일

한국어교실 수강생모집

2026년 외국어 주민 평일 한국어 교실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김포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신청기간	3월29일(일)~ 선착순 마감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구글폼
교육문의	교육팀 070-4617-6419		

교육기간	과정명	교육시간	모집인원	교육장소
4.9~12.10	초급1A	매주 목요일 19:00~21:00	20명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학운리 소재)
	토픽1	매주 목요일 19:00~21:00	15명	온라인(Zoom)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0번길 52



결혼이민자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

김포시, 결혼이민자 민간단체 간담회...협력 강화 논의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5일 김포시청에서 결혼이민자 민간단체인 너나우리행복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가족문화과장, 너나우리행복센터 회장 및 회원 9명 등이 참석해 다문화가족·외국인의 사회정착 기반 확대를 위해 ▲수동적 지원 대상에서 능동적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 ▲지역 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포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다문화가족 인구수 14,753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김포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가족센터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본격 시작해

김포시가족센터, '똑똑한 살림 노하우!' 정리수납 운영



김포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한 '정리수납 프로그램'의 첫 회기를 지난 3월 21일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1일 외에도 3월 28일, 4월 4일 등 총 3회기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정리와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회기에서는 의류 정리를 중심으로 비움의 기준, 옷장 정리 순서 및 방법, 서랍장 수납 실습 등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정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에서는 친환경 세제를 활용한 욕실 정리와 물품별 정리 방법, 만능 물티슈 제작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이 진행되며, 3회기에서는 주방 및 냉장고 정리를 중심으로 식재료 보관 방법, 동선 정리, 수납도구 제작 등 실습형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정리 기준을 배우고, 이를 일상에 적용해 실질적인 생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정리수납은 단순한 공간 정리를 넘어 생활 습관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남은 회기에서도 참여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사업1팀(031-996-5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2026년 가족사랑의 날 진행 우리 가족 미니 정원 만들기



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정을 대상으로 '봄을 담은 우리 가족 미니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식물과 재료를 활용해 각 가정만의 개성이 담긴 작은 정원을 꾸미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 체험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정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테라리움을 완성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김포 풍무체육문화센터 개관 남부권의 체육문화거점 뜬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19일 김포 남부권 체육 핵심시설인 풍무체육문화센터를 개관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설립된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이어 풍무체육문화센터가 개관되고, 올 하반기에는 국민체력인증센터까지 센터 내에 설립될 예정이어서 풍무동 일대가 문화체육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무체육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155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수영과 배드민턴,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풍무국민체육센터와 연결된 복합 체육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올 하반기 센터 2층에서 운영되면, 체육활동과 체력측정을 연계한 시민 건강관리 거점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난 3월 13일 센터 교육실에서 2026년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포 시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6명의 강사가 위촉되었다. 강사들은 각국의 문화와 전통놀이 및 음식, 인사말, 전통악기 등을 주제로 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에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센터 및 사업 소개, 교육 운영 방향 및 강사의 역할,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센터는 이번 자리를 통해 강사들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이 강사들의 교육 준비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김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다양성이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김포시가족센터 가족사업1팀(☎031-996-5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지원 올해도 실시

김포시, 다국어 취학 안내로 교육정보 접근성 높이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초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해 김포시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아동으로, 통지서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와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 일시 등 입학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담았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 통지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한정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가정의 교육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 가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지서를 국적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했다. 18개국 14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번역본을 발송했으며, 번역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영문본을 함께 제공해 학부모들이 입학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올해 20개국 출신 외국인 아동 129명이 시 소재 30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고국 귀국 등으로 미입학이 예상되는 아동을 제외하고, 자료 추출 시점에 따른 통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입학률은 약 86.6%로 추정된다.

김포시는 취학통지서 발송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 지도, 진학 상담,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련 센터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김포시민은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070-4113-4608, 4610)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다자녀가구 기저귀·조제분유 김포 지원 소득 기준 확대

김포시는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2026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완화한 것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실제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참여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4개월 도달 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송하성 기자

김포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 학습 지원 '희망의 첫걸음'

[거점별 수업 시간표]

장소	반명	운영 요일	수업 시간
마송초등학교	A반	화, 목	10:40~11:20
	B반	화, 목	11:30~12:10
학운초등학교	A반	화, 목	14:30~15:10
	B반	화, 목	15:20~16:00
구래센터	A반	화	14:30~16:00
	C반	화	16:30~18:00
	B반	목	15:30~17:00
대곶센터	A반	수	13:30~15:00
	B반	수	16:00~17:30

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본격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가족 자녀(6세~초등학생)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송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김포시가족센터(구래, 대곶) 등 총 4개 거점에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어(한글), 수학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방과 후 시간을 고려해 세부 반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교 연계형 수업과 거점 센터 수업을 병행하여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031-996-5920

송하성 기자